

10》 전임교원 책임시수 상향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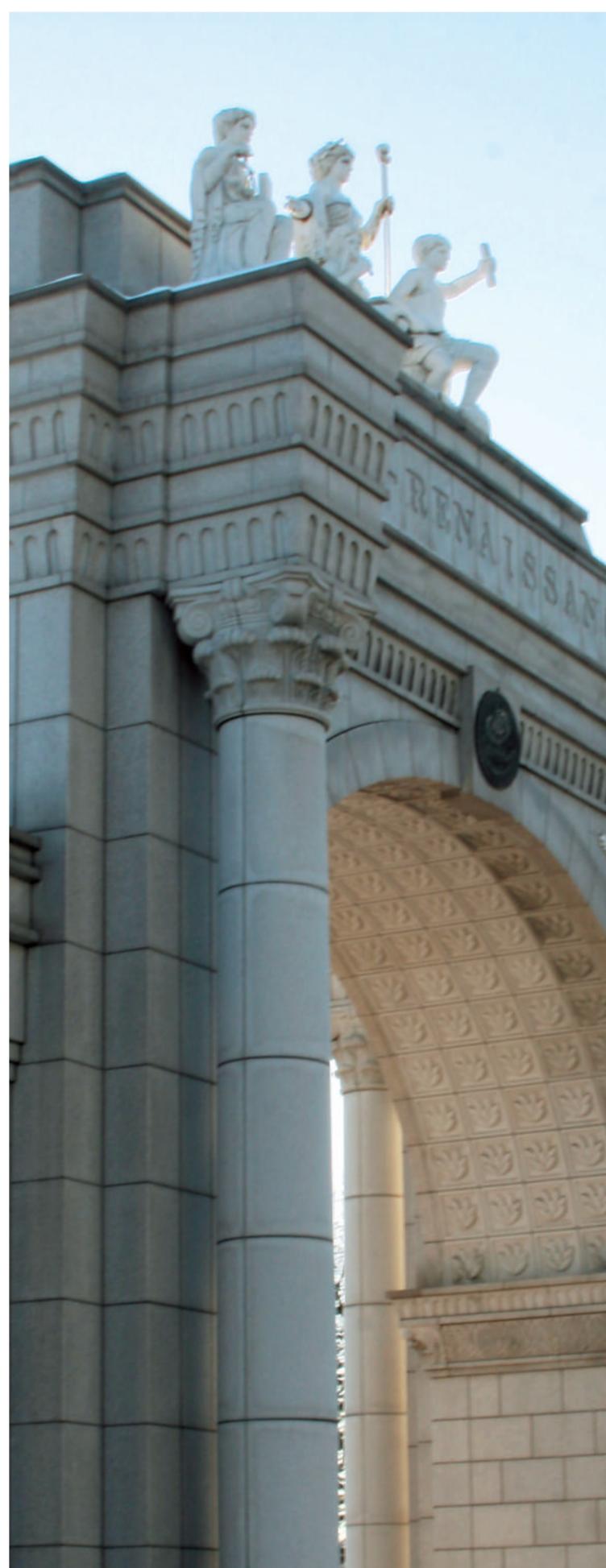


12》 거지같은 청춘, 하지만 위로받지 않을 권리



2학기 정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기간 : 2015.12.01(화)~2015.12.28(월)
대상 : 양 캠퍼스 재학생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성적 열람 및 공시 기간 : 2015.12.31(목)~2016.01.05(화)



■ 지령 1600호 특집 - 멀고 먼 하나의 캠퍼스

캠퍼스 통합 이대로 괜찮은가

국제캠퍼스의 정식명칭은 '경희대학교 용인분교'로 시작해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를 거쳐 2007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로 명명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제캠퍼스의 소위 본·분교 논쟁은 지난 2011년 8월에 본교통합에 관한 교육부 승인을 받음으로써 일단락되어, 2012학년도 3월부터는 공식적으로 양 캠퍼스가 '이원화캠퍼스'가 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캠퍼스 통합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캠퍼스 곳곳에는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산재해 있다. '이원화' 및 '특성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국제캠퍼스'라는 캠퍼스 명칭에서부터, 응용과학대학과 이과대학 등에서 벌어지는 유사학과 논쟁, 캠퍼스 학과분류 시 기준적용의 모호함에서 오는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그것이다.

우리신문은 지령 제1600호 특집호를 맞아, 진정한 캠퍼스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상세히 짚어보았다.

지면 안내

캠퍼스 이원화 구성원 설문조사	» 3
겉 다르고 속 다른 학과 분류	» 4
주요기업 입사지원시 캠퍼스 분리 표기 논란	
PRIME사업, 양 캠퍼스 "소통하라"	» 5
길게 읽기-'국제캠퍼스' 명칭	» 6~7
끝나지 않는 유사학과 논쟁	
응용과학대학-이과대학	» 8

국제캠퍼스는 왜 '국제'캠퍼스 인가요

'한쪽만의' 명칭변경 아래 드러난 '무색한 이원화'

길게 읽기 - 캠퍼스 명칭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국제캠퍼스'라는 명칭이 등장한지 8년이 되어간다. 우리학교는 지난 2007년 6월 7일 총장 승인과 그해 7월 30일 학교 법인 경희학원의 캠퍼스 명칭 변경 승인을 거치며 '수원캠퍼스'의 명칭을 '국제캠퍼스'로 재명명했다. 2007년 10월 18일에는 국제캠퍼스(국제캠) 중앙도서관 3층 피스홀에서 있었던 '국제캠퍼스 비전선포식'에서 'Global Mind, Global Reach'의 슬로건과 함께 기존의 명칭 대신 '학문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겠다며 '수원캠퍼스'의 새로운 이름인 '국제캠퍼스'를 대대적으로 공포했다.

하지만 최근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입시정보의 '사실상 분교' 표기와 캠퍼스 간 유사학과 대전공 불가와 같은 문제점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불문명한 이원화 기준'과 함께 캠퍼스 학문단위를 나타낸다는 '명칭'에 관한 논란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서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현재의 '국제캠퍼스'라는 명칭이 과연 현재 국제캠의 '학문적 정체성'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다.

현재 국제캠의 학문 분포는 2015년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전체 제적인원 기준 16,798명 중 이공계 열이 55%(9,267명), 인문·사회계 열이 19%(3,161명), 예체능 계열이 26%(4,370명)로 나타난다. 이중 공학계열은 약 40% 가량을 차지하며 단일 계열로는 가장 많다. 현재의 명칭이 캠퍼스 내 학문 분포를 충분

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명칭변경 당시에 이는 문제 사항이 아니었다. 2007년 있었던 비전선포식 내용에 따르면, '국제캠퍼스'로의 명칭정립이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국제적 학문 단위의 특성화'에 있었다. 이를 위해 우리학교는 'ABEEK(공학교육인증제)'과 '국제화 프로그램'을 내 걸었다.

'ABEEK(공학교육인증제)'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공인원)에서 각 전공 별로 요구하는 필수사항을 바탕으로 공학 학위를 인준하는 제도다. 최초 도입 당시 '실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공학인 육성'을 취지로 인증받은 학위가 해외 14개 국가에서 통용된다는 장점이 있었다. '국제적 앤지니어'를 키워낼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다수의 국내 대학이 참가했고, 우리학교 역시 2009년도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ABEEK은 끊임없이 위기를 맞았다. 엄격한 인증기준에 비해 국내 취업 시 실효성이 떨어져 구성원들의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대다수의 졸업생이 국내에 진류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혹도 상당했다. 결국 올해 공과대학이 존폐논란을 자속해오던 ABEEK의 폐지를 결정하면서 국제캠의 '국제적 학문의 정체성'은 연결고리를 잃게 됐다.

'국제화 프로그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다양한 문화권의 외국인과 교류'를 지표로 국제화 역량에 집중하던 우리학교 외국인 학부 과정 재적생 수는 총 1,711(2015. 10. 01 기준)명이다.

▶6면으로 이어짐

욕망, 결핍과 충족의 패러독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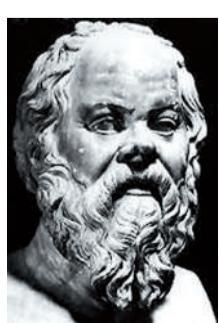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⑦

조현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욕망이란 무엇인가? 무언가를 봄시 원하는 것이다.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원한다. 우리는 행복과 건강, 미모와 지성, 재력과 권력을 원한다. 욕망은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지금 내게 결핍된 것이다. 욕망은 그 결핍을 채우려는 운동이다. 욕망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핍이 필요하다. 에로스(Eros)는 풍요의 신

포로스(Poros: plenitude)와 결핍의 신 페니아(Penia: poverty)의 소생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인류가 발생하면서부터



소크라테스는 에로스란 '스스로가 아름다움이 부족해 이를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말한다

함께 있어왔다고 해도 좋을 만큼 오래된 것이다. 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해 '조금 부족한 재산, 약간 부족한 용모, 절반이 알아주는 명예, 한 사람과 겨룰 체력, 청중 절반이 박수 칠 말솜씨'가 필요하다고 했다. 18~9세기 독일 관념주의 철학자 헤겔은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충족보다 한 발 앞서 있어 욕망은 만족을 모른다'고 했고, 20세기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성적 욕망은 삶의 추동력이며 사회적 금기 때문에 금지된 욕망은 꿈에서라도 표출된다'고 했다. 그리고 21세기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

은 '진정한 욕망은 상징적 요구를 가로지르는 실제의 윤리'라고 했다.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욕망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고대 히브 철학이다. 기원전 4세기 플라톤이 저술한 「향연(Symposium)」에는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당대 히브 철학자들의 열정어린 에로스 논의가 들어있다.

「향연」은 아폴로도로스가 예전에 아가تون의 집에서 들었던 향연의 이야기를 아리스토데모스에게 전해들은 것을 전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11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전문가 칼럼

특허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오환석 (기계공학)교수 ▶11면



시선

사설

전임교원 책임시수, 결국 책임감 문제다

‘경희대학교’가 여타 다른 대학교와 다른 변별성을 지니는 이유는 경희 고유의 교육철학과 가치관 덕분이다. 이것으로 인해 경희대학교는 경희 정신을 지닌 인재들을 매년 사회로 배출하게 된다. 그렇다면, 경희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과연 무엇을 통해 경희의 교육 철학과 가치관을 함양하게 되는가? 가장 주요한 통로는 역시 ‘경희대학교에서 자신이 수강하는 교과목 강의들의 종합’이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가 새롭게 갱신될 때마다 이목을 모으는 지표 중 하나인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전임교원이란 대학이 그 학문적 역량과 교육적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희의 철학을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선발한 교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임교원의 강의’라는 것은 곧 ‘경희가 인증한 교원을 통해 경희의 교육철학이 학생들에게 원활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임교원 책임시수 문제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지난 2007년 18시수였던 전임교원 책임시수는 현재 12시수로 대폭 축소돼 있다. 이것은 교수의 강의 부담을 줄여 연구 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우리신문이 지난 제1589호 사설을 통해서도 지적했듯, 2007년 이후로 8년여가 흐르는 동안 교수 연구실적은 눈에 띠는 개선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 대학 측이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

교수, 특히 전임교원은 학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하이브리드넷에는 매일 수많은 젊은 학자들이 교원채용정보를 얻기 위해 모여들고 있고, 캠퍼스 안에서는 무수한 신진연구자들이 시간강사라는 이름 아래 여러 개의 강의를, 학술연구교수라는 직함 아래 여러 개의 연구 성과를 감당하며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전임교원 전환을 꿈꾸고 있다.

물론 전임교원 책임시수는 대학의 필요에 의해 대학이 앞장서 축소해온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와서 온전히 전임교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은 ‘최고위 학술기관의 학문적 중추’이자 ‘한국 사회의 지성’으로서 다른 구성원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극소수이겠지만 전임교원에 대해 ‘강의는 시간강사에게, 연구는 학술연구교수에게 떠맡기고 자신의 권리 유지에만 신경 쓴다는 비판적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 언급하는 것은 다소 과장이겠지만, 적어도 전임교원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에 걸맞은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봐야 한다. 전임교원 책임시수가 2008년에 18시수에서 15시수로 조정된 것이 당시의 시대적 요구였다면, 2015년에 12시수에서 15시수로 조정되려는 것 또한 작금의 시대적 요구일 것이다. 그리고 그간 ‘줄어든 책임시수’가 곧바로 ‘확연한 연구성과의 증가’로 이어짐을 증명하지 못한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국가경제는 물론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경희 구성원의 대표가 되어야 할 교수들이 먼저 기득권을 양보하는 희생과 헌신을 보여줄 것을 기대해 본다.

서울캠 증명서 발급기 교체 내년으로 미뤄져

미디어 여론동향 2015. 11. 17 ~ 11. 29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10월말까지 예정됐었던 서울캠퍼스(서울캠) 증명서 발급기 교체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증명서 발급기 교체, 구청의 허가 문제로 인해 내년으로 미뤄져/대학주보 온라인, 2015.11.23) 노후화된 기존 증명서 발급기를 교체할 예정이었다. 또한 접근성을 위해 문·이과대학 건물 앞 쉼터(돌마루)에 부스를 설치해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돌마루에 설치될 옥외 부스에 관한 구청의 허가 문제로 발급기 교체가 지연되고 있다.

우리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쿠플리자가 홈페이지에 개편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쿠플리자’ 개편한다… “디자인 개선과 게시판 신설 및 통폐합 할 것”) 대학



이주의 주제 - 불필요한 오해 일으키는 모호한 규칙

모든 상황에 적용가능한 규칙 만들어야

김종완 기자
as03400@khu.ac.kr

지난 25일,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는 제48대 총학생회 임원이 결정됐다. 단선으로 치뤄진 이번 선거로 서울캠의 총학생회 선거는 3년 연속 단선으로 진행됐다. 국제캠퍼스(국제캠) 또한 재작년과 올해 선거가 단선으로 진행되는 등 단선 선거는 이미 익숙한 일이 돼버렸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선거가 단선으로 치러지는 경우에 대한 준비를 세심하게 해놓지는 못한 것 같다.

먼저, 중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 진행과 관련된 여러 규칙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자가 투표에 대해 취재하면서 중선관위에 당선 조건에 대해 질문했을 때, 중선관위 관계자는 “단일선본의 경우 ‘재학인원과 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과 반수 이상의 찬성’이 당선 조건”이라고 확인해주었다. 하지만 정확한 규정은 총학생회 회칙 제60조 3항에서 ‘단독 출마인 경우에는 정회원과 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해당 관계자의 위와 같은 발언은 염밀히 말해 잘못된 것이다. 물론 며칠 뒤 관계자는 자신이 잘 못 알고 있었다며 ‘투표인원의 2/3 이상, 즉 66.6%가 맞다’고 정정했지만, 선거를 관리하고 당선을 발표하는 중선관위에서 당선조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는 ‘모호한 선거세칙’과 ‘치밀하지 못한 중선관위의 인식’이 겹쳐져 벌어진 일이다.

중선관위가 노출한 또 다른 문제점은, 서울캠에서만 벌써 3년 연속으로 단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선 시 단일선본이 투표 인원의 2/3 이상 득표를 총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중선관위 측은 “논의 후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결정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관점에 따라선 문제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답변이다.

‘단선으로 치러지는 선거’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도 단일 선본이 선거에서 ‘진다’라는 분명한 가능성이 대해 명확한 규칙 제정으로 대응하는 대신 ‘일이 벌어지면 논의 후 결정’이라는 모호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은, ‘총학생회 선거’의 격(格)을 ‘상황에 맞춰 그 때 그 때 대응하는 주먹구구식 선거’로 격하시키는 운명임에 다름 없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물론이다.

단선으로 치러진 지난 3년 간 서울캠의 총학선거 득표율은 재작년 86%, 작년 75.03%, 올해 71.4%로 점점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득표율은 낙선의 경계선인 66.67%와 고작 4.73%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다. ‘단선은 낙선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빈틈없는 규정과 관리자의 명확한 인식으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세심한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주보 온라인, 2015.11.24) 이는 5년 만의 개편 작업으로, 크게 디자인 개선, 사용도가 떨어지는 게시판의 통폐합, 필요로 하는 게시판 개설 등을 준비중이다. 쿠플리자의 운영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훈(유전공학 2010) 군은 “예전에 비해 쿠플리자를 찾는 학생의 빈도가 낮아진 편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누적된 데이터로 학생들이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타 커뮤니티와 비교되는 쿠플리자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쿠플리자는 학생들의 요구와 시대에 발맞춰 앱 개발을 하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학생회 후보자에 대한 일침(경희_11747, 2015.11.24)이 화제였다. 글쓴이는 ‘이번 선거기간에 학생회 후보자들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다. 한 후보자와 같이 조별과제를 하는데 선거운동이 바빠서인지 과제 준비를 못 했다며 조모임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적었다. 이어 ‘조별과제 하나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어떻게 학생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글쓴이는 ‘아무리 단일 후보라고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투표율이 낮아도 다 보는 눈이 있다’고 밝혔다.

비밀스러운 프라임사업 논의,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세시봉

황경선 (파트장)

프라임사업을 처음 만난 지난 7월. 당시 대학본부 측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프라임사업에 대해 8월 말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그래서 8월 말에 바로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물어봤다. 그런데 직원은 9월 초에 구체적 윤곽이 잡힐 것 같으니 그때 전화를 직접 주겠다고 했다.

9월 초부터 셋째 주까지 기다렸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조교는 ‘아직 논의 중이어서 10월 중순에 다시 전화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다리던 10월 중순이 다 가도록 전화는 오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웬걸, 다음 달에 다시 연락을 달라는 것이다. ‘다음 달’로 미루기만 벌써 네 번째였다! 수차례 취재의 문턱에서 고개를 마시다 보니, 구성원의 알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건가 싶었다.

이후로도 대학 본부 측이 계속 답변을 회피하는 바람에, 결국 프라임 사업에 대한 분석기사를 쓰면서 정작 우리학교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학교 구성원에게 알려줄 수 없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취재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핑계로 취재를 묵인해 피해가는 대처방식이 아쉬웠다. 대학본부는 아마도 ‘전략 유출’을 우려해 사업 관련 논의에 대해 함구한 것일 테다. 하지만 구성원들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적어도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해명이라도 했어야 한다. 타 대학들은 전략 유출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며 ‘담당자’가 취재를 정중히 거부했다. 번번이 조교의 목소리만 들려주던 우리학교 대학본부와는 상반된 매너였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언론을 통해 프라임사업을 희미하게 접한 학생들, 특히 학과 통폐합 논란에서 언제나 을의 입장에 서게 되는 인문계 학생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 것인가.

대학본부는 프라임사업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구성원에게 어느 정도의 진행 과정을 설명했어야 했다. 전략 유출이 우려된다면 각 구성원 대표와 대학 언론에게 솔직하게 이런 문제들이 있어 논의를 구성원 차원으로 넓히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이것이 대학 전체의 대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소통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식이다.

우린 이미 대학본부의 ‘습관적인 불통’을 작년 12월의 ‘B0’을 사례를 통해 목도한 바 있다.

구성원은 중요한 학내 사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바랐지만, 교수들로부터 ‘대학본부의 지침으로 B0’을 당장 이번 시험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자 학생대표들이 나서 거센 항의를 했다. 대학본부는 그제야 합의 없는 제도 강행을 사과하고 철회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학본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를 ‘밀실’에 가둬두고 있다. 이제는 문제를 외부로 끌어내야 한다. 지난번처럼 유야무야 구성원 소통 과정을 넘어가려다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수습하는 모습 말고, 논의 과정에서 활발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책임감 있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알림

바로 잡습니다

우리신문 1599호 ‘법정부담금 비율 59.4%로 2년째 감소’ 법인 측, “모두 부담하기 힘들어” 기사에서 본문 중 교비 회계 13년 약 180억, 14년 약 240억, 15년 약 300억이 흑자를 기록한 반면 법인회계는 14년 약 220억, 15년 약 12억을 적자를 기록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법인 측은 ‘적자와 흑자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어 교비회계는 예산대비 실적 미달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이에 바로 잡습니다.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덕동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응답자 71.6% “현재 캠퍼스 명칭 본·분교 인식에 영향”

하나의 경희 #4 - 캠퍼스 이원화 설문

김예준 기자 00179jun@khu.ac.kr

#. 캠퍼스 통합 5년차를 목전에 두고, 우리 신문은 양 캠퍼스의 통합 관련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디지털 기획 - ‘하나의 경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는 설문을 통해 캠퍼스 이원화에 대한 구성원의 생각을 들어봤다.

우리 신문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학내 구성원 588명을 대상으로 캠퍼스 이원화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캠퍼스 35.71%(210명) 국제캠퍼스 64.29%(378명)가 응답했고, 참여한 구성원 비율은 교수 15.82%(93명) 학생 68.03%(400명) 교직원 16.16%(95명)이었다.

캠퍼스 통합 5년차 인식개선 공감대 형성돼

‘캠퍼스 간 유사학과 통·폐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81.46%(479명)가 찬성을, 18.54%(109명)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 서울캠퍼스는 총 210명의 문항 응답자 중 65%(136명)가 찬성한 반면 국제캠퍼스의 경우 총 378명의 응답자 중 90%(343명)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순수·응용 학문 학과 분류 ‘동의하지 않는다’ 과반 이상

한편 본·분교 이미지 개선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으로 문·이과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학사 구조와 캠퍼스 이원화에 대한 사회적 흥보 부족, 그리고 학내 인식문제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구성원이 생각하는 ‘올바른 캠퍼스 이원화의 방향’으로는 4개 항목중 현 상태 유지 항목이 6.97%(41명)로 최저치를 기록해 현재의 이원화 정책이 학생들의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가장 대표적인 이원화 모델로 손꼽히는 인문·사회계열-이공계열의 이원화는 58.84%(346명)로 가장 많은 구성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어서 학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적정 비율의 문·이과 공존 31.29%(184명)이 그 뒤를 이었다.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분류한 학과와 캠퍼스 내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이원화는 우리 학교 내 분교 논쟁과 사회적 인식의 저하라는 아쉬운 결과를 내고 말았다. 이제는 학교와 학생이 서로 소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 수정하고 명확한 기준의 제시, 적극적인 홍보를 거쳐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시도해야 할 때이다.

구성원이 말하는 ‘현 이원화의 핵심 문

제’ 항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으나, ‘영어학과·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과’ 등과 같은 유사·중복학과의 방치, ‘순수학문-응용학문’이란 명확하지 못한 기준의 학과 분류가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서울과 수원이라는 지리적 입지가 가져오는 선입견을 극복하게 해주는 ‘특성화적’ 캠퍼스 명칭의 부재 또한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도 이미 여러차례 제기됐던 문제로, 05년부터 2년에 걸쳐 ‘학문적 명칭’으로의 개편에 양 캠퍼스 동시 변경이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현재 우리학교는 행정적인 통합이 이뤄졌음에도 입시정보 분리표기, 부서 운영, 제도 등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부 차이들은 국제캠퍼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하는 주된 원인으로 회자되고 있어 이원화의 제대로 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문에 응답한 한 구성원은 “주변의 지인들에게 공대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국제캠퍼스에 있다고 설명할 때면 대내외적으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는 의견을 남겼다.

‘순수·응용 학문 학과 분류
‘동의하지 않는다’ 과반 이상

한편 본·분교 이미지 개선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으로 문·이과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학사 구조와 캠퍼스 이원화에 대한 사회적 흥보 부족, 그리고 학내 인식문제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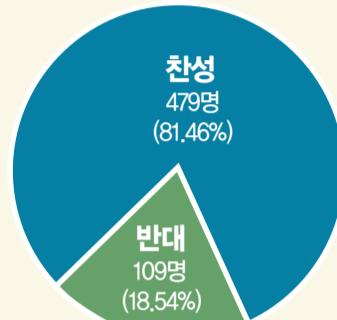
구성원이 생각하는 ‘올바른 캠퍼스 이원화의 방향’으로는 4개 항목중 현 상태 유지 항목이 6.97%(41명)로 최저치를 기록해 현재의 이원화 정책이 학생들의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가장 대표적인 이원화 모델로 손꼽히는 인문·사회계열-이공계열의 이원화는 58.84%(346명)로 가장 많은 구성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어서 학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적정 비율의 문·이과 공존 31.29%(184명)이 그 뒤를 이었다.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분류한 학과와 캠퍼스 내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이원화는 우리 학교 내 분교 논쟁과 사회적 인식의 저하라는 아쉬운 결과를 내고 말았다. 이제는 학교와 학생이 서로 소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 수정하고 명확한 기준의 제시, 적극적인 홍보를 거쳐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시도해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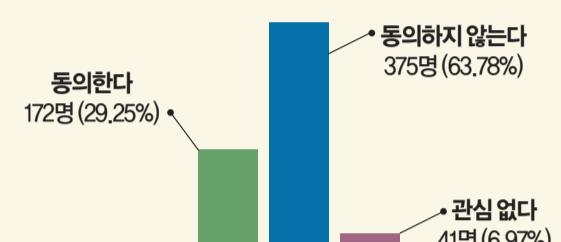
구성원이 말하는 ‘현 이원화의 핵심 문

〈캠퍼스 이원화 구성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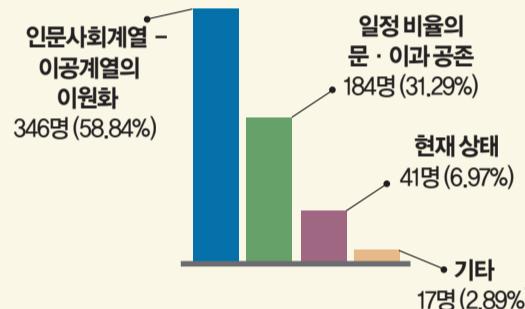
Q1 캠퍼스 간 유사학과 통·폐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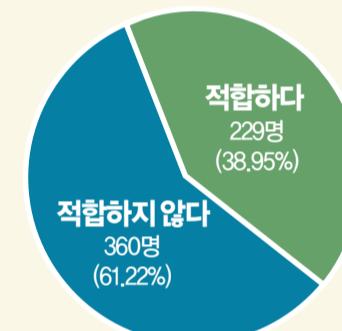
Q2 현재의 양 캠퍼스 학과분류가 ‘순수학문-응용학문’이라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Q3 올바른 캠퍼스 이원화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4 현재의 이원화 캠퍼스 명칭 (서울캠퍼스/국제캠퍼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5 현재의 캠퍼스명칭이 본·분교 인식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있다

421명 (71.6%)

관련 없다

168명 (28.57%)

※ 설문 방법: 이메일 대량 설문조사

설문 기간: 2015.11.09. ~ 2015.11.13.

총 응답자 588명: 교수 93명(15.82%), 학생 400명(68.03%), 직원 95명(16.16%)

12월 첫째 주(11.30~12.4)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미래는 준비된 자의 세계”

●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담)

행사제목	일시	장소
삼성화재 채용설명회	11.30(월) 15:0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포시즌스호텔 서울 채용설명회	12.1(화) 15:0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현대자동차 채용전체행 인턴(국내영업) 채용면담	12.4(금) 10:00~16:00	청운관 1층 상당실
현대자동차 채용전체행 인턴(국내영업) 채용설명회	12.4(금) 16:30~17:30	정문관 B117호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시작 5분전까지 작성)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및 졸업생 및 취업진로 카페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증명券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 취업특강

특강 제목	일시	장소
상식2(한국사 및 역사에세이) 대기업 출제유형 분석 및 대응방안(영광교 교수님)	12.3(목) 15:00~17:00	네오관 103호

● 취업진로지도 및 출강 컨설팅 (취업상담)

상담유형	컨설팅트	일시	장소	신청방법
취업 상담	문아별 컨설팅트 4명 (일정 상기함)	월~금 354호~356호 제1법~107~2호	온비스홀 「수업/성적/상담」 메뉴에서 신청 (컨설팅트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 가능, 취소 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 취업준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집단상담: 15명 내외)

특강제목	일시	장소	신청방법
취업준비, 무어이드니 물어보세요 (온신증 교수님)	11.30(월) 16:00~18:00	취업진로지원처 회의실	「수업/성적/상담」 메뉴에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khu.ac.kr>페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생지원처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201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서울·국제)

● 계절학기 주요 일정

구분	개설과목 확인	일시	비고
학점교류생		2015.11.02(월) 17:00 까지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에 201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시간표 공지 첨부
수강신청기간		2015.12.16(화) 10:30 ~ 12:15(화) 17:00	학번번호 2015.207(2015.207)
폐강신청		2015.12.16(화) 12:00 ~ 12:15(화) 09:00 (2차)	본교 홈페이지 오픈쪽 하단의 계절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 링크 클릭
등록금 납부기간		2015.12.16(화) ~ 12:18(화) 16:00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시간
수강증명부 제작/교수증 제작		2015.12.22(화) ~ 12:17(화) 17:00	학과 홈페이지 기상계로 납부
수업개시일		2015.12.22(화) ~ 2016.01.04(화)	후마니티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폐강과 수강자에 한함)
성적점검(정성적)		2016.01.18(월) ~ 01.19(화)	

● 수강신청

- 가. 수강가능 학점 최대 6학점
- 1) 학점교류, 국제교류처 어학연수, 단과대학 현장연수활동,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과 동시에 수강 가능
- 2) 단과 수강 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경우는 해당 강수 강수 불가
- 나. 수강신청 방법
 - 1) 경희교내 홈페이지 및 학교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신청 과정
 -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학교 홈페이지 → 학교 홈페이지 → 수강 신청 링크 클릭

● 등록 후 수강취소 및 환불

<tbl

기획

겉 다르고 속 다른 학과분류 … 통합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불명확한 학과 소속

박기윤 기자 kyoon@knu.ac.kr
이시은 기자 dtldms77@knu.ac.kr

우리신문은 지난 1599호에서 PRIME사업을 자세히 다룬 바 있다. 교육부는 PRIME사업을 통해 대학들의 자구적인 학문간 융복합 및 학과조정, 캠퍼스간 정원조정 등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각 대학들은 PRIME사업을 학사구조를 개편할 '호기'로 삼고 있다. 우리 학교의 일부학과의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단과대학과 성격이 맞지 않아 이를 방지할 경우 향후 캠퍼스 간 진정한 통합과 대외적 이미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에 우리신문은 이번 기사에서 이러한 학과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그들이 왜 현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같은 커리큘럼 다른 캠퍼스

소수계열 학생 피해 우려돼

#1. 정보디스플레이학과의 커리큘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초과목의

경우 미적분학 연습, 물리학 및 실험, 공학 수학 등 국제캠 자연계열 전공기초와 상당 부분 커리큘럼이 일치한다. 전공과목 또한 전자기학·반도체·재료 등 전반적으로 국제 캠퍼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학사' 교육 과정과 흡사하다. 하지만 정보디스플레이 학과의 소속 단과대학은 이과대학이다. 해당 학과목을 대부분 수강해 본 유영신(정보디스플레이학과 2011) 군은 "배우는 과목이 거의 공과대학과 유사하고 향후 진로도 디스플레이이나 반도체 등 공학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정보디스플레이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 졸업장이 '공학사'가 아닌 '이학사'로 나오는 점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보디스플레이학과가 이과대학에 속해 있어 생기는 '어색함'은 단순히 외형에서 오는 것 만은 아니다. 교육과정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공학'을 다룬다. 본인의 취업관련 전공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융 핵트랙' 기회의 부재도 아쉬움을 자아낸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각 이공계열 기업에서 취업 시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요구해 옴에 따라 국제캠 내 전자공학 계열은 컴퓨터공학 등과 함께 단과대학 내 트랙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반면, 정보디



서울캠퍼스 무용학부

서울캠퍼스 이과대학

스플레이학과는 이가 불가능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디스플레이학과 A학생은 "최근 중국이 디스플레이이나 반도체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다"며 "우리 학과가 배울 수 있는 학문의 윤신의 폭이 좁다보니 취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과대학 중 유일하게 공학 관련 과목을 배우고 있는 정보디스플레이학과는 이과대학내에 해당 전공들을 자체적으로 개설하고 있어 결국 유사한 강좌를 양 캠퍼스에서 개설하는 비효율이 초래되는 셈이다. 정보디스플레이 학과 행정실은 "전공기초 과목에 대한 실험시수가 공과대학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험시수의 차이는 정보디스플레이 학과가 이과대학에 있어야 하는 '당위'보다는 오히려 이로인해 생기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인다.

이에 대해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이승재 교수는 "정보디스플레이학과가 전자정보대학과 유사한 과목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핵심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기초학문의 뒷받침 없이 정보디스플레이 학과만 합쳐지게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학과장은 "융·복합에 발 맞춰 이과대학과 공과대학의 전체적인 연계

는 필요하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자정보대학의 입장은 다르다. 전자정보대학 이수열(생체의공학)학장은 정보디스플레이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해 "현재의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커리큘럼은 국제캠 공학계열 전반에 걸쳐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자정보대학의 방향성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학장은 "장기적으로 공학계열의 인프라가 구축된 국제캠의 전자정보대학으로 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교수진들의 경우 납득할 수 있는 요건일지라도 학생들의 반발은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적, 행정적 절차는 모두 지켰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무용학부는 자율전공학부를 제외하고 사실상 교내 81개 학과 중 유일하게 '단과대학이 없는' 독립 학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대내외적 인식이다. 무용학부는 기존의 소속 단과대학(예술·디자인대학)이 있음에도 단과대학이 없는 독립학부로 운영되고 있어 한 학교의 학사운영제도로는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무용대학의 견해를 듣고자 무용대학 측과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뜻을 전해왔다.

국제캠 자율전공학이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캠퍼스 이동을 겸한 전공 선택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교육부로부터 한 캠퍼스에서 공동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영어학과

'전통'을 이유로 변경에 '난색'

#4. 영어학과는 '유사학과'와 얹혀 학문으로 구분이 바르지 못한 경우다. 실제로 송창섭(영어학) 학부장은 외국어대학 내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글커)와의 유사성에 대해 "글커의 경우 영문학을 전공하는 구성원들이 유지해온 시스템이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진 소속 단과대학 변경에 대해서 송 학부장 "영어학과는 '전통적으로' 문과대학에 존재해 왔고 대표적인 전공 중 하나다"며 선을 그었으나 명확한 캠퍼스 이원화 구분과 소수계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어대학의 서울캠 이전이 고려된다면, 본 학문단위의 정립은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201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강좌 현황

대학	이수구분	강좌명	학점	강사명	시간	정소	영어강의	비고	201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강좌 현황											
									총개교과	우리가사는세계	3	3	정수국	09:00~11:45	멀602	2015학년 수강불가	2015학년 수강불가	2015학년 수강불가	2015학년 수강불가	
외국어대학	전공필수	생명과학	3	김기영	09:00~11:45	국311	영어강의		글쓰기	오세정	09:00~11:45	멀206	2015학년 이전3학점							
		생물1	3	이상원	13:00~15:45	생422	영어강의		글쓰기	권정섭	09:00~11:45	멀207								
		중국어문법2	3	주취란	13:00~15:45	외403		강의실 변동 가능	글쓰기	유재영	13:00~15:45	멀206								
		미분방정식	3	김경수	09:00~11:45	전103		팀티칭	글쓰기	신민숙	09:00~11:45	멀208								
		미분방정식	3	김현미	전103			팀티칭	글쓰기	김현미	13:00~15:45	멀207								
		미분방정식	3	손주희	09:00~11:45	전221		팀티칭	글쓰기	최상아	13:00~15:45	멀208								
		미분방정식	3	김용기	전221			팀티칭	글쓰기	이현우	13:00~15:45	멀209								
		미분방정식	3	김정선	13:00~15:45	전101		팀티칭	글쓰기	Brown Hyun Choi	09:00~11:45	멀409	영어강의							
		미분방정식	3	김현수	13:00~15:45	전103		팀티칭	글쓰기	Brain Daniel Arndt	13:00~15:45	멀410	영어강의							
		미분방정식	3	박정주	13:00~15:45	전221		팀티칭	글쓰기	Cynthia Sohyoung Yoo	09:00~11:45	멀610	영어강의							
		미분방정식	3	이영수	13:00~15:45	전221		팀티칭	글쓰기	Craig Lawrence Ruele	09:00~11:45	멀611	영어강의							
		미분방정식	3	홍범일	09:00~11:45	전102		팀티칭	글쓰기	Hue Joshua Lee	13:00~15:45	멀610	영어강의							
		미분방정식	3	명재득	13:00~15:45	전102		팀티칭	글쓰기	Armando Daniel Bell	13:00~15:45	멀612	영어강의							
		미분방정식	3	신인숙	09:00~11:45	전102		팀티칭	글쓰기	김경애	13:00~15:45	멀112								
		미분방정식	3	박정주	13:00~15:45	전221		팀티칭	글쓰기	송종역	09:00~11:45	멀411	영어강의							
		미분방정식	3	이영수	13:00~15:45	전102		팀티칭	글쓰기	신미란	13:00~15:45	멀210								
		미분방정식	3	이정우	13:00~15:45	전102		팀티칭	글쓰기	영화와문학	09:00~11:45	멀302								
		미분방정식	3	변희영	13:00~15:45	전102		팀티칭	글쓰기	김기국	09:00~11:45	멀210								
		선행수	3	한창용	13:00~15:45	전223		팀티칭	글쓰기	권문택	13:00~15:45	멀608	영어강의							
		선행수	3	이승현	13:00~15:45	전223		팀티칭	글쓰기	스포츠조약제	09:00~11:45	멀312								
		물리학및실험1 (이론)	3	김선경	09:00~10:50	멀407			글쓰기	한국근대사	13:00~15:45	멀411	영어강의							
		물리학및실험1 (실험)	3	김선경	11:00~12:50	멀405			글쓰기	한국근대사	13:00~15:45	멀412	영어강의							
		물리학및실험2 (이론)	3	김선경	09:00~10:50	멀407			글쓰기	한국근대사	13:00~15:45	멀413	영어강의							
		물리학및실험2 (실험)	3	김선경	11:00~12:50	멀406			글쓰기	한국근대사	13:00~15:45	멀414	영어강의							
		물리학및실험3 (이론)	3	이광조	09:00~11:45	멀408			글쓰기	한국근대사	13:00~15:45	멀415	영어강의							
		물리학및실험3 (실험)	3	김광표	13:00~14:50	멀310			글쓰기	한국근대사	13:00~15:45	멀416	영어강의							
		화학및실험1 (이론)	3	김광표	13:00~14:50	공363			글쓰기	한국근대사	13:00~15:45	멀417	영어강의					</td		



기업 '사실상 분교표기'… 취준생 '답답'

(취업준비생)

입사지원서 '캠퍼스 분리표기' 논란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학교측의 홍보 부족으로 주요 기업이 국제캠퍼스(국제캠)와 서울캠퍼스(서울캠)를 입사지원서 상에서 분리하고 사실상 '분교 표기'를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취업준비생이 선호하는 우리나라 4개 그룹(삼성, SK, LG, 현대자동차)의 입사지원서 작성 시 4곳 중 2곳이 학교명 입력란에 양 캠퍼스를 구분해 사실상 '분교 표기'를 하고 있다. 특히 SK와 현대자동차그룹은 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 입력란에 서울캠과 국제캠 모두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같은 '분리표기'는 현재의 불안정한 취업상황에서 취업준비생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지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캠퍼스 통합 승인을 받아 2012년부터 서울캠과 국제캠 모두 법적으로 본교이다. 그러나 통합 이후 학교 측의 미온적인 홍보로 국제캠 학생들은 '분교'의 이미지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성균관대학교(성균관대)는 수원에 위치한 자연과학캠퍼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격적인 홍보를 해온 결과 우리학교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SK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입사지원서에서 양 캠퍼스 모두 '성균관대학교'라고 입력하게 돼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인턴에 지원했던 노민호(생체의공학 2011) 군은 "우리학교는 본·분교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입학해서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말만 있을 뿐 행동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취업진로지원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현대자동차그룹 인사팀 담당자는 "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좋겠지만 학교 수가 많다 보니 자체적 수정은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며 "학생들이나 학교 측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는 이상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학교) 분리해서 표기해 둔 의도는 학과별로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지만 성균관대를 '단일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성균관대 캠퍼스를 구분해 표기하고 있지 않나"며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미지 개선 적극 홍보해 온 성균관대

우리학교와는 다른 모습 보여

담당자는 "학교 측에서 캠퍼스 홍보 리크루팅이나 취업박람회 등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들은 (서울·국제) 캠퍼스가 통합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많은 대학이 얹혀 평가받는 취업시장에서, 다양한 직무의 입사 평가자들이 우리학교만의 분리표기를 양해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

되는 상태다.

국제캠 취업진로지원처 측은 "학생들이 항의할 때마다 해당 기업에 시정요청을 했었다"며 "다만 아무래도 취업진로지원처 공식 명칭상 중앙부처에서 조치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정책원 기획예산팀 이현아 계장은 "정확히 언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는 파악 중이나 캠퍼스 통합에 대해 이미 기업체에 홍보를 했다고 알고 있다"면서 "기업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강요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기업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학교 측의 요구가 있으면 수정하겠다"는 기업 측의 답변과 "홍보를 했지만 기업별로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지만 성균관대를 '단일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답변이 엇갈리고 있다.

이 계장은 "기업에서 통합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분리표기'가 아마도 학생들의 우려처럼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지에 있어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취업준비생 고충은 담당자의 짐작으로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배동원(산업경영공학 2010) 군은 "취업을 준비하는 국제캠 학생이라면 '분리표기' 돼 있는 상황으로 누구나 한번쯤 언짢은 기분을 느꼈을 것"이라며 "현재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재학생의 입장은 학교가 다시 한 번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학본부의 적극적이지 못한 본·분교 인식개선으로 학생들의 고충은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서울] 2015학년도 동계계절학기 개설강좌 현황

대학	이수구분	강의명	학점	교강사명	강의시간	강의실	언어	구분	비고
경영대	전공기초	경영통계학	3	김영식	09:00~11:45	교212			
		경제학원론	3	박원규	13:00~15:45	교212			
		책임경영	3	손윤근	09:00~11:45	교211			
	회계학원론	3	나경종		13:00~15:45	교211			
전공필수	생산운영관리	3	김홍유		09:00~11:45	교210			
	마케팅원론	3	이종명		13:00~15:45	교210			
	경영정보시스템	3	김현모		09:00~11:45	교209			
	조직행동론	3	김영현		13:00~15:45	교209			
전공선택	관리학개론	3	안치현		09:00~11:45	교202			
	재무관리	3	김현영		13:00~15:45	교202			
	전공필수	3	박진빈		09:00~11:45	교308	부분 영어		
	서양문학현대화	3							
문화대	전공선택	서양근대철학	3	서광열	09:00~11:45	교310			
	시사번역	3	조재범		09:00~11:45	교309			
	영화수학원론	3	이현경		13:00~15:45	교306			
	영어음성학	3	정현주		13:00~15:45	교308			
생활대	전공기초	영문학과경제기념	3	민승기	09:00~11:45	교506			
	인간과생활환경	3	채혜원		13:00~15:45	교507			
	현대사회와소비자	3	최주영		09:00~11:45	교507			
	전공선택	이산수학	3	배은옥					팀티칭(기간: 12/22~1/4)
이과대	전공선택	비정준	3	이서505	13:00~15:45				팀티칭(기간: 1/5~1/14)
		최나리	3		09:00~11:45	교402			기강강의(기간: 12/22~1/4)
		손주희	3						기강강의(기간: 1/5~1/14)
	전공필수	미분방정식 개론	3	연미정	13:00~17:50	교502			
정경대	전공기초	미적분학및연습1	3	박철훈	08:00~12:50	교505			
		미적분학및연습2	3	여승준	10:00~12:45	교403			팀티칭(이론)
		물리학및실험2	3	강승훈	14:00~15:50	교301			팀티칭(실험)
	전공선택	물리학및실험2	3	안정선	13:00~15:45	교403			팀티칭(이론)
호관대	전공필수	김지훈	3		16:00~17:50	교301			팀티칭(실험)
	전공기초	경제수학	3	유종순	13:00~15:45	교402			추후공지
	전공기초	경제통계학	3	김정숙	09:00~11:45	교402	부분 영어		
	전공필수	정치학방법론	3	구본상	13:00~15:45	교402	영어		
호관대	전공선택	호텔고객만족경영론	3	최인록	13:00~15:45	교402	영어		
	전공선택	호텔연수방법론	3	한주형	09:00~11:45	교401	영어		

미술대	전공선택	동양미술사	3	배현진	13:00~15:45	미208			
교양-중	교양-교	우리가사는세계	3	조희원	09:00~11:45	교203	2015학번 수강불가		
교양-중	교양-교	우리가사는세계	3	서광열	13:00~15:45	교203	2015학번 수강불가		
교양-중	교양-교	인간의기자침식	3	양윤희	13:00~15:45	교501	2015학번 수강불가		
교양-기	교양-교	글쓰기	2	이효선	09:00~11:45	교710			
교양-기	교양-교	글쓰기	2	권기성	09:00~11:45	교204			
교양-기	교양-교	글쓰기	2	방인석	13:00~15:45	교710			
교양-기	교양-교	글쓰기	2	최종환	09:00~11:45	교711			
교양-기	교양-교	글쓰기	2	호정은	13:00~15:45	교711			
교양-기	교양-교	글쓰기	2	조현주	13:00~15:45	교204			
교양-기	교양-교	영어1	2	Jonathan Davis	09:00~11:45	교303	Basic		
교양-기	교양-교	영어1	2	Kenny Poirier	13:00~15:45	교303	Basic		
교양-기	교양-교	영어1	2	Gregory Nappo	09:00~11:45	교304	Intermediate		
교양-기	교양-교	영어1	2	김현정	13:00~15:45	교304	Intermediate		
교양-기	교양-교	영어2	2	Jordan Davidson	09:00~11:45	교403	Basic		
교양-기	교양-교	영어2	2	Stephen Mangan	13:00~15:45	교403	Basic		
교양-기	교양-교	영어2	2	Exan Desforges	13:00~15:45	교404	Intermediate		
교양-기	교양-교	영어2	3	오현준	13:00~15:45	교502	2015학번 수강불가		
교양-기	교양-교	영어2	3	우대식	13:00~15:45	교503	2015학번 수강불가		
교양-기	교양-교	생명의그물망·인간동물학, 환경, 지구	3	정명숙	09:00~11:45	교305			
교양-기	교양-교	진화와인간본성	3	이진아	13:00~15:45	교305			
교양-기	교양-교	인간과자연지리	3	이준호	09:00~11:45	교301			
교양-기	교양-교	네트워크기술을통한현재 외래미래사회	3	정화영	–		온라인		

길게 읽기 - 캠퍼스 명칭

구성원 사이에서도 캠퍼스 명칭 의견

‘국제캠퍼스’ 명칭

▶ 1면에서 이어짐

하지만 이 중 국제캠에 등록된 외국인 학부과정 재적생 수는 409명으로 서울캠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를 보이면서, 국제캠이 국제화 역량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현재 양 캠퍼스 국제교류처가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상태라 더 이상 ‘국제화 프로그램’이 국제캠의 ‘캠퍼스 특성’으로까지 연계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명칭’ 논란에 관한 구성원들의 우려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국제’라는 명칭 사용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신문이 조사했던 9월에서 13일까지 5일간 ‘캠퍼스 이원화 구성원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7번 문항 ‘현재의 캠퍼스 명칭이 본·분교 인식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참여자의 71.6%가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국제’ 명칭 사용

불필요한 오해 불러올 수 있어

이 같은 불만사항은 ‘타교의 표기방식’과 ‘서울’이라는 명칭의 특수성으로부터 기인한다. 국내 지방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본·분교 명칭은 ‘건국대학교 서울-글로벌캠퍼스’, ‘한양대학교 서울-ERICA캠퍼스’, ‘동국대학교 서울-경주캠퍼스’ 등 대다수의 학교가 소재지가 서울인 본교에 ‘서울캠퍼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경인(응용수학 2011) 양은 “애초에 타 학교 표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특수 지역 이름이 들어간 명칭은 편견을 가지기 쉽다”며 “현재 우리학교의 명칭은 외부에서 보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불완전한 통합으로 학내 구성원의 반발을 사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시 ‘서울-글로벌캠퍼스’라는 명칭을 사용중이다.

그간 우리학교의 캠퍼스 명칭에 관한 논의는 본·분교 문제와 레를 함께해왔다. 우리학교는 1979년 3월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및 재경 대학 증원 억제 정책’에 따라 지금의 국제캠이 위치한 곳에서 통칭 ‘수원대학’을 건립, 1979년 5월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후 ‘수원캠퍼스’의 명칭

을 갖고 운영되오던 국제캠은 2003년, 당시 학교가 대외적으로 홍보해 왔던 것과는 달리 국제캠이 ‘법적 분교’였음이 한 방송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나 2000년대 중반 본·분교 문제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된다. 그와 함께 당시 명칭이던 ‘수원캠퍼스’가 문제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캠퍼스 명칭변경은 2005년 본·분교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실무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아래 약 2년 만에 이뤄졌다.

캠퍼스 명칭이 변경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수원캠퍼스’에서 ‘국제캠퍼스’로의 명칭변경 초기 과정에서 서울캠퍼스(서울캠) 구성원들은 본·분교 문제에 관해 분분한 입장들을 보였다. 2005년 10월 서울캠 종학생회(총학)이 서울캠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에선 ‘본·분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2,136명으로 54.6%를 차지했다. 반면 ‘본·분교 문제 해결하지 말자 및 관심이 없다’고 답한 학생은 1,738명으로 44.4%를 차지해 부정적인 의견 또한 상당했다. 이처럼 캠퍼스 명칭변경은 시작부터 혼란한 절차를 예고했다.

양 캠퍼스의 본격적인 명칭변경 진행은 2006년 6월 1일 첫 번째 ‘캠퍼스 명칭변경 추진위원회(추진위)’ 회의가 시작되면서부터다. 당시 양 캠퍼스의 총학생회는 회의를 위한 캠퍼스 명칭 후보를 정하는 두 번의 공모전을 시행했다. 방식은 2차에 걸친 공모전 이후 6배수의 명칭을 선정해 이를 추진위 회의를 거쳐 결정하는 형태였다.

당시 공모전에는 ‘문화-창조캠퍼스’,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평화-아태캠퍼스’, ‘평화-창조캠퍼스’, ‘평화-문화캠퍼스’, ‘기초과학-응용과학캠퍼스’의 명칭이 결정됐으며, 곧바로 수원캠 총학측은 위 6가지 명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결과는 총 2,306명이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인 1,311명이 찬성한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국제공학캠퍼스’가 선택됐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캠 총학 측은 6월 1일에 추진위 회의에서 서울캠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로 수원캠은 ‘국제공학캠퍼스’로 양 캠퍼스 명칭을 제출하기로 했다.

뒤이어 추진위가 결정한 캠퍼스 명칭은 양 캠퍼스 학부 총학, 대학원 총학, 노동조합, 교수협의회, 동문회 등 각 구성원별 동

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기로 결정했다. 동의절차는 2006년 6월 23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되기로 했으며 이후 총장의 승인, 법인의 동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수원캠 측,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국제공학캠퍼스’ 명칭 제안

그러나 잘 굴러가던 캠퍼스 명칭변경은 첫 위기를 맞게 된다. 1차 추진위 회의가 있고 난 뒤 38대 서울캠 총학 학원주주학 추진위원회 김동현(사회과학 2001) 사무국장은 “서울캠 총학은 캠퍼스 명칭변경에 합의한 바가 없어 변경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명칭 변경 제안을 유보한 것이다. 이후 7월 6일에 있었던 추진위 회의에서 서울캠 구성원들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당시 서울캠이 반발한 이유는 명칭과 시기의 문제 때문이었다. 6일 당시 추진위 회의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캠은 총학, 교직원 노동조합 등 80%가 반대 뜻을 표명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란 캠퍼스 명칭이 서울캠의 모든 계열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캠에서는 무용학부, 음악대학, 미술대학, 이과대학에서 반대 성명서를 내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캠퍼스 명칭 변경은 이뤄져야 하나, 구성원의 80%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동의를 구할 단계가 아니다”며 시기가 이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반면 수원캠 총학을 비롯한 다수의 단과대학이 수원캠을 ‘국제공학캠퍼스’로 확정을 짓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9월 12일부터 수원캠 총학과 일부 단과대학 학생회 측은 외국어대학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자, 수원캠 총학생회 측은 14일부터 단식으로 수위를 높였다. 당시 총학 박한율(국제경영학 2003) 부회장은 “캠퍼스 명칭변경 사안이 이행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며 입장을 공고히 했다. 단식과 더불어 18일부터는 3일간 후보 명칭 ‘인문사회과학-국제공학캠퍼스’의 찬반을 최종 수렴하는 수원캠퍼스 총투표가 시행됐다. 결과는 참여한 4,738명의 학생 중 4,317명의 찬성표로 찬성을 약 88.99%

1979년

5월

수원캠퍼스 ‘기공식 수원캠퍼스’란 명칭으로 현재 국제캠퍼스 자리에 분교 건립

1

2006년

9월 12일

2006년 9월 12일 ‘국제화’ 짓기 위해 수원캠퍼스 일부 단과대학 천막 농성

4

2006년



9월

18일부터 3일간 수원캠 총투표 실시 그 결과 참여한 학생 88.99%가 ‘인문사회과학-국제공학캠퍼스’ 명칭에 찬성함

5

2007년

4월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수원캠 캐스 총학생회 총투표 실시 투표율 저조로 무산

6

2007년

5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제캠퍼스로의 변경 찬성·반대 총투표 진행 71.9%가 찬성

10

2007년

10월 18일

국제캠퍼스에서 비전선포식을 거행하며 정식으로 수원캠퍼스에서 국제캠퍼스로 캠퍼스 명칭이 바뀜

11



2016학년도 전기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전공

구 분	학 과	전 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자산관리법전공
	공공법학과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안전법전공
	중국법학과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학과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 장학제도

구 분	장학금	자금기준
공무원학	수업료 2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공공기관학	수업료 2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외국인학	수업료 30%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평생교육장학	수업료 20%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조교장학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용된 자

※ 국가고시장학, 성적장학, 모범장학, 총장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강의 – 주중(아간) 및 주말 개설

● 경희전형 일정

- 원서접수 : 2015. 11. 16(월) ~ 12. 4(금)
- 전형일 : 2015. 12. 5(토) 10:3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hu.ac.kr)

● 전형료 : ₩50,000(입금계좌 : 하나은행 278-910030-40505 / 예금주 : 법무대학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교학부 출업(예정)증명서 1부
- 학업계획서 1부

● 문의처

- 전화 : 02 - 961 - 0905
- 홈페이지 : interlaw.khu.ac.kr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Intensive Program 이수자들은 증빙서류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황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여 통과자에 한하여 과목을 면제된다(신청 기간에 제출)

* 국제인증(ABEE) 대상자는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나. 외국어대학 대학영어 / 전문영어 이수 면제 기준

※ 외국어대학 학생영어 이수면제 예외사항

- 외국어대학은 학과적 특성에 의해 특별과목 수강으로 ‘대학영어’와 ‘전문영어’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 자신의 전공이 아닌 타 전공의 외국어, 2년계를 이수하는 것으로 핵심교양 이수를 대체할 수 있음

[대체과목]

제 1 단계	제 2 단계	총 이수학점
초급중국어회화1		6
일본어강독1		6
스페인어1		6
러시아어1		6
초급프랑스어1		6

※ 상기과목으로 이수면제를 신청하는 외국어대학 소속 학생은 외국어대학 행정실(T031-2201-2201)에 별도 접수 바랍니다.

다. 사고어 표현 영역 이수 면제 기준 및 자격

1) 영어영어 TOEFL TOEIC TEPS 일정점수 이상자

2) 2단계 독후감 평가 80점 이상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단계 글쓰기 시험 80점 이상

[이수면제 기준] * 신청서 제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제출한다.

단계	내용	평가 방법	학점	비고
1단계	(면접도서 중 3권을 읽고 독후감 제출)	독후감 80점 이상 통과자에 한하여 구술시험	P/F로 부여	1단계 합격시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단계	(고재 시험)	글쓰기 시험 80점 이상 통과	P/F로 부여	

라. 전신영역 이수면제 기준 및 자격 : 전신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 신청기간 : 2015.12.04(화) ~ 2015.12.16(금) 17:00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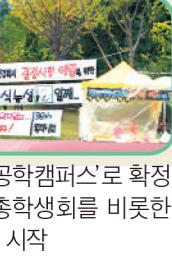
● 신청주소 :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멀티미디

분분... '함께 가는' 명칭 고민해야

칭이 나오기 까지

05년

9월
캠퍼스 명칭변경을 위한
통합실무위원회와 이후 추진위원회구성



2007년

3월 14일
기획조정실에서 '국제공학캠
퍼스'를 '국제캠퍼스'로 변경
추진



2006년

3

6월 1일

첫 번째 '캠퍼스 명칭변경 추진위원회' 회의 시작 공모전 개최, '서울-인문사회
의학캠퍼스, 국제-국제공학캠퍼스'로
의 캠퍼스 명칭 결정 하지만 서울캠퍼
스의 캠퍼스 명칭변경 유보 '인문사회
의학캠퍼스'란 명칭 반대

2006년

7

10월 12일



추진위원회 회의 열림 수원
캠퍼스는 국제공학캠퍼스
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
의하며 양 캠퍼스 모두 학
문적 명칭으로 변경 합의

2015년

11일
현재 '국제캠퍼스'
캠퍼스 명칭 유지



12

라는 가까운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의견차를 보이며 단절됐던 양 캠퍼스는 수원캠 총학족의 강력 대응으로 인해 21일, 다시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양 캠퍼스 총학은 양 캠퍼스의 공동 명칭변경에는 합의했지만, 서울캠 총학 측은 상징적 명칭을, 수원캠 총학 측은 학문적 명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캠 총학은 "수원캠 총학이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한 개만 선택해 그냥 받아드리라 말했다"며 수원캠 총학에서 절차의 원칙을 깨닫고 주장했다. 반면 수원캠 총학은 "이는 원칙이 깨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서울캠이 대학주보 인터뷰를 통해 몇차례 '캠퍼스 간 논의'는 했지만 명칭변경은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강행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 캠퍼스는 날선 논의를 주고 반대가 이내 '서울-수원 합동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통합실무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게 된다.

양캠 총학 공동명칭 변경 합의 했으나 실질적 실행은 실패

'합동 중운위' 확정 이후에도 수원캠 총학 측은 명칭 변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며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28일에는 수원캠 총학이 캠퍼스 명칭변경과 관련해 김병국 총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조원경 부총장의 서면 입장 발표를 요구하며 총장 비서실과 기획조정실을 점거했다. 수원캠 총학은 이날 김 총장의 책임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서명이 담긴 턱구공 6천 여개로 퍼포먼스를 보인 뒤 김 총장과 다시 면담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 날까지 총장 비서실을 점거했다. 수원캠 총학 박정민(토목건축공학 1998) 회장은 "캠퍼스 명칭변경은 이전 끝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총장 명의의 답변이 대학 본부의 입장이라 보고 있으며, 서울캠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서울캠 총학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윽고 10월 12일 서울캠 대회의 실에서 추진위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수원캠이 주장하던 '학문적 명칭으로의 변경'이 합의됐다. 서울캠 총학은 "인문사회의학캠퍼스"라는 명칭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소외 학문에 대한 장학금 확충 등의 보상이 있다면 학문적 명칭으로의 변경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공동

의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 참여했던 참석자들은 전원 수원캠이 '국제공학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동의'는 결국 무의미한 절차가 됐다. 양 캠퍼스 학부 총학간의 합의는 도출됐으나, 다음 단계인 구성원별 동의절차의 진행이 서울캠 구성원들과 명칭 속에 포함되지 못한 수원캠 일부 구성원들의 반대로 중단된 것이다.

이후 2007년에 캠퍼스 명칭변경은 전혀 다른 국면을 맞는다. 3월 14일 수원캠 기획조정실 측이 합의된 '국제공학캠퍼스'에서 '국제캠퍼스'로의 명칭변경 추진을 밝혔다. 수원캠 기획조정실 측은 "이제 지지부진한 캠퍼스 명칭변경을 마무리할 시기"라며 명칭변경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 수원캠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이영주 직원은 "국제공학캠퍼스"란 학문적 명칭은 소외학문이 발생한다"며 "그 대안인 캠퍼스 특성화 명칭으로 '국제캠퍼스'라는 명칭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달리 대안이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양 캠퍼스의 총학생회 합의 이후에도 명칭에 포함되지 못한 예체능 계열의 반발은 지속됐다.

하지만 절차 중단의 이면에는 결정적으로 전체적인 서울캠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지난 27일 당시 수원캠 총학생회 하대현(테크노공학 2000) 회장은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든 지방 캠퍼스 명칭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다"며 "지난 2006년에 서울캠 총학이 동의한 것은 대단히 형식적인 행동이었으며, 애초에 서울캠 구성원의 대다수는 캠퍼스 명칭변경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2006년도 당시 하 회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을 역임하며 명칭 변경 논의의 중심에서 있었다. 이어 하 회장은 "만약 서울캠과 함께 명칭을 바꾸려 했으면 지금까지도 바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최초 서울캠 측의 대표적 이유는 '학문 단위의 소외'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양 캠퍼스 사이 '문제의식의 공감'이 선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재학생 커뮤니티 의명계시판에는 명칭 변경 논란에 대해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건드리나', '우리가 왜 서울'이란 명칭을 포기해 줘야 하느냐' 등 부정적 의견의 글이 대다수를 이뤘다.

결국 연이은 절차상 중단에 한계를 느

낀 대학본부와 수원캠 총학 측에서 목표를 '지방 캠퍼스 명칭 변경'으로 변경하면서 '국제'라는 애매모호한 학문단위의 총칭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캠 측의 반발로 국제캠만의 '단독 명칭변경'을 진행하게 되면서 양 캠퍼스는 명칭 변경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명확한 이원화의 구성을 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칭이 변경된지 8년 지난 현재까지도 논란의 불씨 '여전'

한편, 학내 커뮤니티의 일부에선 이 같은 '캠퍼스 명칭'에 관한 논란의 불씨를 일찌감치 잡아두고 있다. 우리학교 자치교지인 '고황'에서는 이 같은 캠퍼스 명칭을 '회기 캠퍼스', '서천캠퍼스'라고 명명한다. 교내 재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인 'Khuplaza' 역시 같은 방식으로 양 캠퍼스를 표기한다. 교내 사이트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신상진(컴퓨터공학 2011) 군은 "현재 사용하는 명칭보다 훨씬 친근감이 든다"며 "서울이나 국제 같은 명칭보다 훨씬 한 학교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학문 단위의 명칭 변경' 의견 또한 상당하다. 우리 신문이 진행했던 '캠퍼스 이원화 구성원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8번 주관식 문항 '본·분교 이미지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항목 399건 답변 중 50여 건이 순수히 '명칭'만을 문제라고 답했으며, 그중 올바른 해결책으로는 '성균관대식' 명칭 표기를 해야한다는 답이 약 70%를 이뤘다. '성균관대식' 명칭 표기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자연과학캠퍼스' 와 같이 각 캠퍼스 별로 가장 다수의 소속 학문을 포함할 수 있는 '계열 명칭'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명지대학교(인문캠퍼스, 자연캠퍼스) 역시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머지 30%의 답변 역시 개개의 내용은 다르나, '이름만으로 이원화의 기준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렇듯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양 캠퍼스가 대외적인 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공동 명칭변경'은 필수적이라는 공통점 또한 존재해 향후 명칭 관련 논의에 있어 올바른 방향성의 지표로 작용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16-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2016-1학기 우정장학을 수혜받으려면 "2016-1학기 국가장학 1차 신청"을 원로하여야 합니다.

국가장학 신청기간 : 2015. 11. 24.(화) ~ 12. 16.(수) 18시

교내장학 신청기간 : 2015. 12. 1.(금) ~ 12. 3(목)

● 신청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5. 12. 1.(화) ~ 12. 3(목)
- 신청대상 :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

※ 1. 기존 교내인사/보훈/경희기족/고시 등 교외 계속장학생도 반드시 교내장학금 신청
2. 장학규정에 의거 정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함.

3. 장학 선발기간 : 2016-1학기 미등록시 선발이 취소됨. 휴학을 고려할 경우, 본인의 장학 수혜내역 확인 후 신청여부를 결정할 것 (휴학자는 장학지급 불가).

● 신청방법

구분	내용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교내장학금" 신청
	1. 2016-1학기 우정장학, 우수장학, 범우장학 등이 정학금으로 신청되는 1차 신청을 "2016-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으로 통합함. 2. 장학규정에 의거 정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함. 3. 장학 선발기간 : 2016-1학기 미등록시 선발이 취소됨. 휴학을 고려할 경우, 본인의 장학 수혜내역 확인 후 신청여부를 결정할 것 (휴학자는 장학지급 불가).

구 분	내 용
신체재활장학 (해당자에 한함)	- 고지행복기록부 : 고시 휴학증명서 1부 - 장애학생 장애생성지원센터 : 장애학생 장애생성지원센터에 등록(학생본인의 장애인 등록카드 사본 1부)
학부생지원처장학팀	- 보호장학(신규) : 대학장학금 및 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보증자증명서/보증자증명서/보증자증명서) 1부 - 경희기족장학(신규) : 보호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가족계정학생입사/보훈경희기족장학 중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기간에 신속히 복학처리여부

지급 제한

장학금

- 지원방법 : 등록금 고시사에 학비기본면

- 등록방법 : 등록기간 내에 지원된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함.

지급방법

- 고시지 : 고시지에 등록된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함.

/등록절차

※ 고시지에 등록된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함.

참고사항

1. 우정장학금은 정학금으로 지급함.

2. 장학금 신청기준(수수·보증·금융기관)에 관련 세부사항은 학생 소속 단과대학 학부(과)에 정학금으로 문의

3. 전기생의 경우 전출전입하는 학기에는 소속 단과대학 학부(과)에 정학금을 수혜할 수 없음 (단, 우정장학금은 수혜 가능).

4. 계속장학생이 2016-1학기에 휴학할 경우, 계속장학 외의 정학금을 수혜할 수 없음 (단, 우정장학금은 수혜 가능).

5. 위 기간 내에 정학금 미신청자는 2016-1학기 정학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2015-2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 안내

● 신청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5. 12. 1.(화) ~ 12. 18.(금) [3주간]

- 신청대상 :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중, 모자이크인정현황표의 포인트 200,000점 이상자 (E장학수혜자에게도 정학 지급이 가능하며, 등록금 조과 정학지급 가능)

- 장학금: 20만원~100만원

● 모자이크 정학이란? "학생의 역량강화나 사회공헌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학생 맞춤형 장학제도"

분야	종합별 분류기준	포인트	비고
학업역량	국제화 3위 입상 이상	500,000	
	전국대회 3위 입상 이상	300,000	
	시드미래 3위 입상 이상	150,000	
	교내 경진대회 우수상	100,000	
	SCI, SSCI급 학술지	500,000	
	SOCR급 학술지	400,000	
	국내 우수 학술지	150,000	
사회봉사역량	해외봉사봉사	50,000	
	교내외 자원봉사 10시간	10,000	
	한국어 2급 이상	10,000	
국제화역량	토익 900점 이상 / 토플(1) 10점 이상	200,000	*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 2015.3.1 ~ 2015.11.30
	토익 800점 이상 / 토플(1) 100점 이상	100,000	
	JLPT N2급 / JPT 75 이상	200,000	
	JLPT N3급 / JPT 54 이상	100,000	
	HSK 6급 이상 / 신 HSK 5급 이상	200,000	
	HSK 5급 / 신 HSK 4급 20 이상		

서울캠 총학 '취향저격', 국제 'KHU&KHU' 선본 당선

2016학년도 학생회 선거결과

조민호 기자 lufe5678@khu.ac.kr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치러진 선거에서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에 '취향저격' 선거운동본부(선본)이, 총여학생회(총여)에 '투게더' 선본이 당선됐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과 총여는 'KHU&KHU' 선본이 당선됐다.

서울캠 총학 선거는 전체 재적인원 12,057명 중 6,747명(55.96%)의 유권자가 투표해 찬성 4,820명(71.44%), 반대 1,411명(20.91%)으로 '취향저격' 정주희(사학 2012) 정후보와 단재민(미술학 2010) 부후보가 당선됐다. 55.96%의 투표율은 최근 5개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정주희 당선자는 "지금 우리 앞에는 프라임사업, 취업 등 다양한 문제들이 놓여있다"며 "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총학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제캠은 전체 재적인원 중 4,606명이 투표에 참가해 그 중 3,393명(73.66%)의 찬성으로 'KHU&KHU' 선본의 김병경(체육학 2009), 박수지(산업경영공학 2014) 후보가 각각 정, 부회장으로 당선됐다. 김병경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느낀 '진심은 통한다'는 말을 잊지 않고 가슴으로 진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학생들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눈높이를 낮춰 학생회의 신뢰를 얻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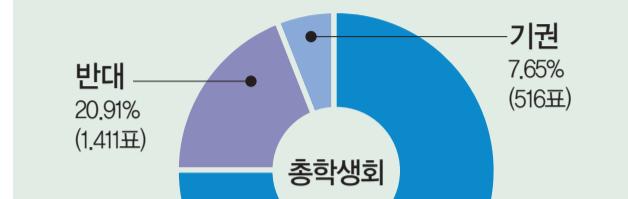
단선, 투표율 50% 넘기면 전부 당선 확정돼

총여 선거는 서울캠 6,400명의 재적인원 중 3,642명(56.91%)의 유권자가 투표해 찬성 2,620명(71.94%), 반대 737명(20.24%)으로 '투게더' 육지은(철학 2010) 정후보와 성미래(아동가족학 2014) 부후보가 당선됐다. 육지는 당선자는 "학내 여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제캠은 전체 재적인원 중 2,201명의 유권자가 투표했고, 그 중 1,764명(80.17%)의 찬성으로 이유진(국제학 2015), 김자향(국제학 2015) 후보가 각각 정, 부회장에 당선됐다.

서울캠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도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25일 저녁 선거 개표 결과,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



서울캠 총학·총여 선거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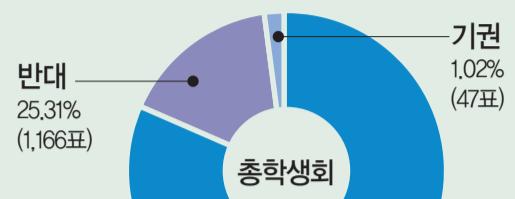


정: 정주희(사학 2012)
부: 단재민(미술학 2010)



정: 육지은(철학 2010)
부: 성미래(아동가족학 2014)

국제캠 총학·총여 선거결과



정: 김병경(체육학 2009)
부: 박수지(산업경영공학 2014)



정: 이유진(국제학 2015)
부: 김자향(국제학 2015)

선거와 개표 과정에서

잡음도 이어져

한편, 이번 선거 과정 중 과도한 투표 독려 행위로 인해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과 에브리타임 등 SNS커뮤니티에 상당한 수의 불만 제보가 올라왔다. 익명의 제보자는 "선거를 독려한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계속 투표 했냐고 물어보고 팔을 잡아끄는 행위를 보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며 "선거 독려가 또 다른 선거 운동을 보는 것 같았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몇몇 단과대학은 선거 이후 공식적으로 계시판을 통해 당선여부와 투표 결과를 바로 공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정이아(동가족학 20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 선거 세칙에는 당선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단과대학 선거에는 별도의 세칙을 정해 운영한다"며 "당선 공고는 각 단과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제캠 총학 선거 개표에서는 공과대학 제 1투표소 선거인 명부 한 부가 유실돼 해당 투표함을 개봉조차 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 김상준(기계공학 2010)은 "바쁜 시간을 내서 투표해 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선거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캠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도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25일 저녁 선거 개표 결과,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

단과대학 선거결과

문과대학

정: 박원규 (사학 2014)
부: 이소현 (국어국문학 2013)

정경대학

정: 황선경 (정치외교학 2011)
부: 김애린 (언론정보학 2013)

경영대학

정: 최상현 (경영학 2012)
부: 김준수 (경영학 2012)

호텔관광대학

정: 박한진 (조리·서비스경영학 2014)
부: 최지원 (문화관광콘텐츠학 2014)

이과대학

정: 이지웅 (물리학 2011)
부: 이하늘 (정보디스플레이학 2013)

생활과학대학

정: 유영선 (아동가족학 2014)
부: 하윤슬 (주거환경학 2014)

한의과대학

정: 김창민 (한의예 2013)
부: 김재현 (한의예 2013)

약학대학

정: 이주영 (약학)
부: 최은정 (한약학 2014)

간호과학대학

정: 박수민 (간호학 2014)
부: 김다경 (간호학 2014)

음악대학

정: 김문재 (성악 2010)
부: 김진수 (기악 2014)

미술대학

정: 허 건 (조소 2011)
부: 정은수 (한국화 2012)

무용학부

정: 이주희 (무용 2014)
부: 현채은 (무용 2014)

자율전공학부

정: 허호재 (자율전공학 2014)
부: 김민지 (자율전공학 2014)

공과대학

정: 박준영 (기계공학 2011)
부: 임효민 (정보전자신소재공학 2011)

전자정보대학

정: 주일규 (전자·전파공학 2011)
부: 권현선 (생체의공학 2014)

응용과학대학

정: 윤준한 (우주과학 2011)
부: 송채윤 (응용수학 2014)

생명과학대학

정: 김대일 (식품생명공학 2013)
부: 신승오 (유전공학 2015)

국제대학

정: 국주호 (국제학 2013)
부: 윤민지 (국제학 2015)

외국어대학

정: 김유경 (일본어학 2014)
부: 김주와 (중국어학 2015)

예술·디자인대학

정: 권미소 (의류디자인학 2011)
부: 양길모 (디지털콘텐츠학 2010)

체육대학

정: 신영광 (체육학 2010)
부: 하해성 (체육학 2011)

※ 일부 단과대학은 관련 사항을 게시하지 않아 지면에 실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The University Life

Campus People Feature Culture Opinion Community

Traditional Markets Reviving and Growing
At 4 a.m., before the sunrise, all the merchants are awake and busy preparing for the start of their business at Noryangjin fisheries ...

Kyungheean
How Tough Is Your Military?

KHULife
Housing • No Contents.
Place • No Contents.

교내 한국인, 외국인 학생들의 다양한 소식을 세계 곳곳에 전해드립니다. 유학생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비롯한 학내 이슈를 발로 뛰며 취재합니다. 또한 교환학생과 해외자매대학의 관련 소식을 전하며 경희대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잡지는 양 캠퍼스에 총 3,000부 배포되며 140여 개의 해외자매대학으로도 발송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영어신문사로 거듭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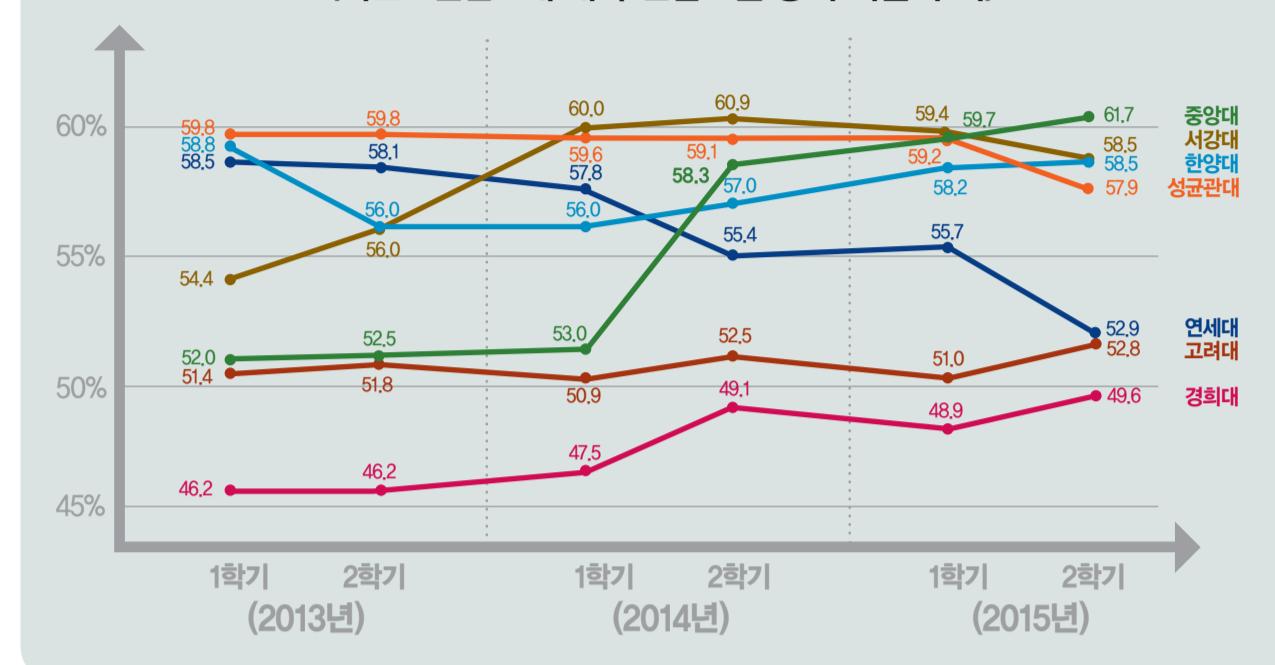
Our mission is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yung Hee University by providing space in which communication takes place among each other in English." If you have any comments or suggestion for improving the magazine, please, contact us on unilife@khu.ac.kr

경희대학교 영어신문사 The University Life

보도

책임시수 상향 추진…내년부터 적용 교수의회, “절차와 소통 무시한 일방적 처사”

〈최근 3년간 7개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 추이〉



전임교원 책임시수 상향

백승철 기자 scha1357@khu.ac.kr

전임교원 책임시수가 현행 연간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학은 지난 24일 학교교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고, 법인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수의회 측은 절차적 정당성과 논의과정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신문은 그동안 여러 차례 기사를 통해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낮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대학보다 낮은 전임교원 책임시수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공시된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49.3%로, 사립대학 평균인 62.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경쟁대학(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이라 할 수 있는 6개 대학 중에서도 가장 낮다.

지난 20일 부총장단 명의로 전체 교수에게 발송된 서신에 따르면, ‘현재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50% 이하며, 국내 주요대학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대내·외 상황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책임시수를 15시간으로

주요 대학 전임교원 연간 책임시수 비교

경희대 12 시간	성균관대 - 15 시간	
고려대 12 시간	한양대 - 15 시간	
서울대 18 시간	연세대 12 시간	중앙대 12~15 시간

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책임시수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수의회는 “절차와 소통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수의회 김홍두(정보전자신소재공학) 의장은 “교수와 밀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수의회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책임시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학칙 변경이 필요한데, 총장의 결제나 교무위원회의 최종의결 없이 부총장단 연선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밀어붙이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이미 많은 수의 전임교원이 현재 책임시수(12시간)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개설강의의 수가 많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책임시수 조정으로 인한 연구공백

우려’ 등을 주장하며 전임교원 책임시수 상향조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연구에 전담할 교수와 교육에 전담할 교수로 나눠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이원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군태 서울부총장은 “부총장단 명의로 메일을 보낸 것은 다음 학기 강의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 미리 밝힌 것”이라며 “지난 24일 학교교무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가 끝났고 이사회 상정절차가 곧 진행되는 만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채용된 교수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뒤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수 업적평가에 따라 책임시수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옷장을 열면’ 안 입는 옷이 한가득!

청운관 지하 2층 의류편집숍 ‘옷장을 열면’

최재원 기자 jankin1997@khu.ac.kr

【서울】 지난 25일 청운관 지하 2층 학생식당 입구 옆 공간에 ‘옷장을 열면’이라는 의류 편집숍이 문을 열었다. ‘옷장을 열면’은 일반인이나 의류 제작자에게 물품을 받아 대신 판매해 수수료를 받는 가게다. 이 편집숍의 운영을 총괄하는 담당자인 채수영(언론정보학 2012) 군을 만나봤다.

채 군은 지난 9월 생활협동조합(생협)이 주관한 대안프로젝트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 준비에 쓸 200만 원과 시설 투자를 위한 5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창업을 위한 학교 공간 일부를 제공받아 이 편집숍을 차리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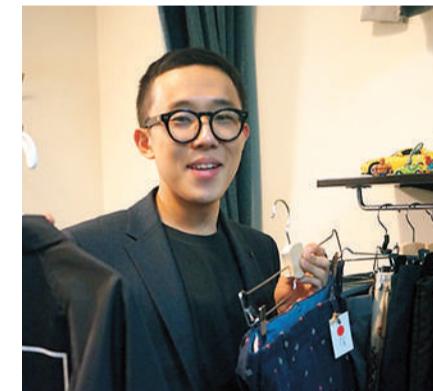
채 군은 주변 친구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패션 테리리스트’ 취급을 받곤 했다. 그는 “예전부터 도대체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마네킹에 입혀놓은 대로 구입하거나, 점원에게 어울리는 옷들을 무조건 골라달라고 부탁했다”는 웃지 못 할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그가 패션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단지 ‘옷 고르는 김’이 다소 부족했을 뿐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채 군은 유

명 패션잡지를 찾아 읽거나 사람들의 옷차림새를 관찰해 사진으로 남겼다. 또한 패션 위크(Fashion week)에 열리는 패션쇼를 관람하고 칼럼을 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 뒤, 페이스북 ‘옷장을 열면’ 페이지를 개설했다.

패션관련 여러 활동을 통해, 채 군은 성공가도를 달리는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류학도들과 신진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옷을 알리기 위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알게 됐다. 그는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건, 자기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라며 “그들의 브랜드를 경희 구성원이라는 소비자에게 알려,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기획한 창업 프로젝트 ‘옷장을 열면’은 일반인에게 중고 의류나 액세서리 등을 받아 대신 판매해 수수료를 받는 플리마켓의 형태를 띈다. 또한 온라인 패션몰에 물품을 조달받아 이를 판매하기도 한다. 하지만 ‘옷장을 열면’ 프로젝트가 가진 본연의 목적은 ‘의류학도나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그들이 제작한 옷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 그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점검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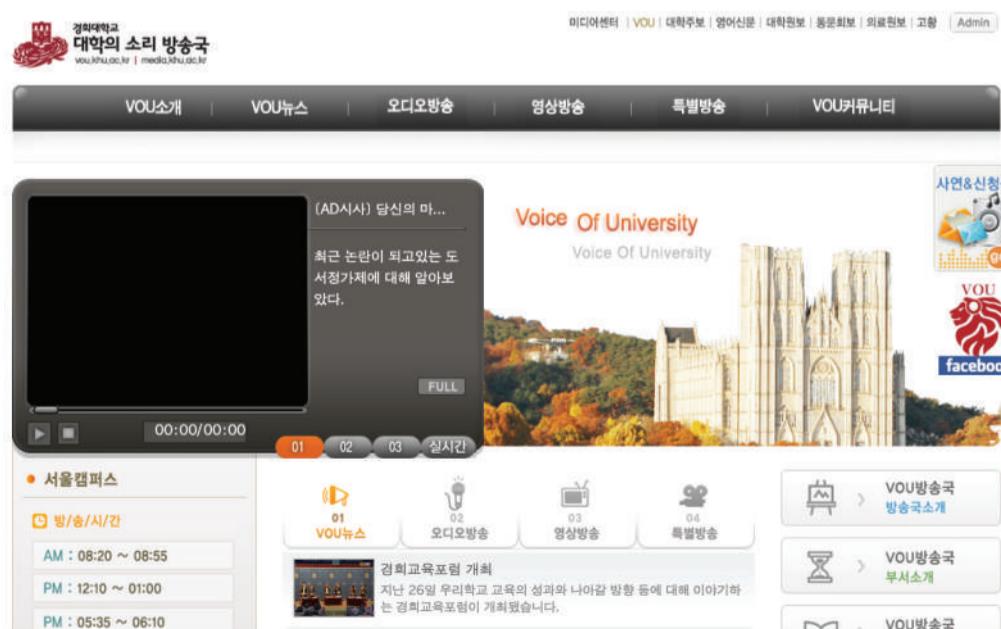
수상 이유에 대해 채 군은 “창업보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한 대회였다면 분명 떨어졌을 거다. 대안사회 구상에 초점을 둔 생협은 이윤추구에 중점을 두지 않는 ‘옷장을 열면’ 프로젝트의 목표와 일치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옷장을 열면’이 뭔가 대단한 변화를 이끌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



Voice Of University, 대학의 소리 방송국이라는 이름의 V.O.U는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바탕으로 건전한 학풍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 학내 정보를 전달하고,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V.O.U는 항상 경희 구성원과 대학의 지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소리 방송입니다.



취업의 세일즈 포인트, 지식창업교육

전문가 칼럼 - 지식창업교육



오한석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정부가 연일 대학교육개혁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프라임(PRIME)이라는 것으로 우리대학도 여기에 도전장을 내려고 연일 바쁜 것 같다. PRIME은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의 약어로, 인력을 공급하는 대학교육과 산업의 요구에서 생기는 미스매치부분을 해소해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맞는 체질로 대학교육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문제는 약 10년 전 전경련의 '대학졸업생 쓸만한 인재가 없다, 재교육하는데 2조 수천억이 든다'는 기사가 발단이 돼, 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경련과 재경부가 공동으로 '대학의 사회기여도 평가'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연구의 핵심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학혁신이었고, 그 중 공학교육의 사회기여도 평가는 2007년부터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5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산업체가 중요하다는 것과 교수가 중요하다는 것이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왜 그럴까?

산업계와 대학에서 실제 배출하는 인재 크게 차이

대학과 산업은 인재양성과 활용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출발한다. 산업은 우선 대학이 길러낸 인재를 협업에 투입했을 때 문제해결 능력이 있느냐 하는 '유용성'에 중점이 있다면 대학은 졸업생이 졸업 후 어떻게 30년을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지속가능성'에 교육의 고민을 두고 있다. 유용성과 지속가능성, 둘 다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 조건이다. 정부는 이 교육 역량을 통해 양적 질적 미스매치의 해소뿐 아



나라, 현장 중심의 창의적 교육 모델을 인재상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의 진로역량을 강화해, 대학생들의 사회진출로를 보다 쉽게 열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학생보다 교수의 입장이 우선이고 해야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왔다. 그 결과 프라임사업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산업과 대학이 말하는 인재의 동등성은 인재상과 학습성과로 소통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대학의 대응이 같으려면, 교육에 대한 상호개념과 용어의 정의가 같아야 한다. 교육의 동등성(등가성)은 인재상과 학습성과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인재상은 진로의 의미로 일하고 싶은 업무분야를 특징지우는 데 비해, 학습성과는 그 분야의 업무수행역량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공학인증에서 대학교육의 인재상이 엔지니어라면 공학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삼성, 현대, LG 등 채용 공고가 나는 곳마다 지원서를 내는 것 이 아니라 설계분야 모집이 있는 곳에 지원서를 접수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로교육일 것이다. 산업체가 요구하는 유용성과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인재상과 학습성과를 명확히 하는 것 밖

에 없다.

지금의 창조경제처럼 지식기반사회를 슬로건으로 하는 정부시절에 사회폐리다임이 바뀌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싶어 2002년 국제특허법무연수원에서 지식재산관련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그것이 인연이 돼 2004년부터 '특허와 지식재산' 과목을 10년 넘게 강의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특허청이 주관하는 '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매년 수상자를 내고 있다.

특허와 지식재산권,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매주 책 한권을 읽는 독서포럼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소개서에 이 두 가지를 주로 쓴다고 한다. 그러면 특히 임원 면접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로 대개 면접이 끝나고, 원하는 기업의 합격증을 받는다고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 처음엔 학생들이 잘하니까 붙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공통적으로 취업이 잘 되어 면접내용을 물었더니 학생들은 '내가 직접 한 것은 무엇이냐.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했

느냐?' 등을 물어봤다고 답했다.

결국 전자에서 논의한 문제해결능력이 있느냐를 인터뷰한 것이다. 또 독서포럼에 대해서도 "어떤 책을 읽었느냐? 책은 누가 선정하느냐? 기억나는 문장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즉, 자신을 관리하고, 관심있는 분야나 업무에 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갖췄느냐를 살펴본 것이다.

문제해결역량은 기업이 요구하는 필요조건이고 지속가능성은 갖춰야 할 충분조건이자 기본자세다.

수상자들은 기술이 흘러가는 것이 보인다고 말했다. 관심 있는 전공분야의 기술이 흘러가는 게 보인다는 것은 쉽지 않는 수준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질적 수준이 이정도가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해 본다. 그런가 하면 기술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4학년인데도 취업지원서를 넣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학생도 상당수 있다.

이들 모두에게 특허와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이고, 전공지식의 심화의 필요성과 활용의 중요성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 이에 점차 확대해 아이디어에서 창업에 이르는 교육과정을 '지식창업교육과정'이라는 명칭으로 2016년부터 국제캠퍼스에 개설하고, 서울캠퍼스에도 확대 운영 할 계획이다.

▶1면에서 이어짐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7명 논자들의 에로스 예찬론으로 이루어진다. 파이드로스는 명예심과 욕기의 덕을 고취하는 에로스를, 파우사니아스는 훈의 덕을 함양하는 에로스를, 에리시마코스는 모든 존재자들의 형성원리로서의 우주적 에로스를, 아리스토파네스는 인간의 상실한 본성을 치유하는 에로스를, 아가تون은 인간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의 원인으로서의 에로스를 찬양한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대목이다. 변증술가답게 소크라테스는 아기론과의 문답식 논의를 통해 에로스에 대해 논의하면서, 에로스란 '그 스스로가 아름다움이 부족하기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만테이아의 여인 디오토미에게 얻은 지혜를 전하는 방식으로 포로스와 페니아의 일화를 가져와 에로스 안에 충족과 결핍이 동시에 있다고 말한다. 에로스는 지혜로운 자와 무지한 자 사이에 존재하면서 좋은 것을 영구적으로 가



지려는 욕망이다. 또한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이라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 욕망은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을 통해 충족되며 아름다움의 출산은 불사를 얻는 방식이다. 불사를 얻는 보다 좋은 방법은 몸의 출산이 아닌 정신의 출산, 즉 고귀한 정신적 유산을 많이 남기는 것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 아름다움에 도달하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에로스 안에는 풍요로운 충족감과 더불어 궁핍한 결여

감이 언제나 공존한다. 결핍은 욕망의 동인으로 에로스를 유발하며 이런 에로스는 완성을 향해 움직이면서 완전성의 영속화를 욕망한다. 결국 항상 완성을 향해 전진하는 이 에로스는 완성자가 아니라 미완성 상태의 중간자일 수밖에 없고, 가멸과 불멸 사이의 정령이자 다이몬(daimon)이다. 그러나 에로스는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움직인다. 무지에서 지혜로, 추함에서 아름다움으로, 악에서 선으로, 불완전함에서 완

참여마당

박진영
경영학과 2014



해외여행, 당신은 안전한가

언제부터였을까. 사람들이 각종 SNS에 올리는 사진들이 외국여행지를 배경으로 두는 경우가 잦아졌다. 고대와 현대를 넘나드는 유럽의 건축물, 남미의 숲과 포근한 거리풍경, 중국의 유적지 등 각양각색이다. 그럼에도 해외여행이 빈번해진 풍조와는 달리 이에 응당 필요한 지식은 갖추지 못한 채 여행의 즐거움과 환상만을 가지고 밖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아직은 대부분인 듯하다.

필자는 해외여행에서의 대표적인 위험 상황과 대처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보자 한다.

첫 번째로는 여권분실의 위험이다.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흔히 '공항'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이런 통념과는 다르게 여권을 잃어버린 직후에는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증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또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통칭 재외공관)에 재외공관에 분실 증명서, 사진 2장(여권용 컬러사진), 여권번호, 여권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금히 귀국해야 하는 경우라면 재외공관을 방문해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여행 중 교통사고 등과 같이 범리적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다. 이 경우에는 먼저 재외공관에서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는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재외공관에서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여권분실의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보다는 재외공관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외공관에서 자신이 궁금한 부분을 하나하나 물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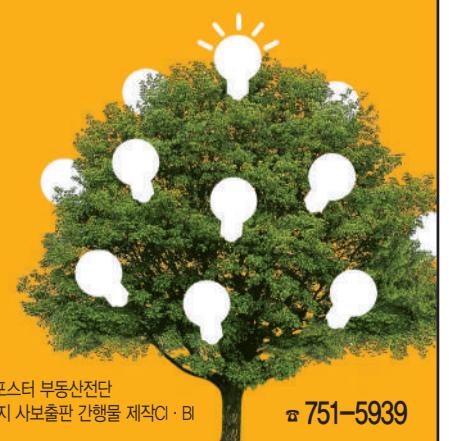
이외의 긴급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와 마찬가지로 현재 재외공관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각자가 여행지의 상황에 대해 미리 알아두어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따라서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 할 안전정보를 제공해주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방문을 추천한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현지 경찰서 번호 안내 및 사건장소 활동, 녹취기능을 비롯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서비스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사용 가능하다. 또한 국내에서는 02-3210-0404를, 해외에서는 현지국제전화코드를 누른 후 822-3210-0404를 누르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여행할 국가의 안전 상태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습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가 필자가 우리 학교의 예비 해외여행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던 내용의 전부다. 요즘 '해외여행'이라는 주제에 매달려 자주 고민하다 보니 여행과 관련한 명문들을 아쯤잖게 접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이 괴테가 한 말이다.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것은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서이다." 그가 한 말처럼 여행은 이제 현대인의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여가활동이자 여행 자체로 의미가 있는 활동이 되었다. 빈번해진 여행만큼이나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춘 있는 예비 여행자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①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광고기획 및 제작 카탈로그 포스터 부동산전단
신문제작 대학학보 구청소식지 사보출판 간행물 제작이·비
751-5939

문화

거지같은 청춘, 하지만 위로받지 않을 권리

최상진 교수, 청춘위한 책 출간

방누리 기자 nurib423@khu.ac.kr

#. “우리학교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늙은이.” 하얗게 머리가 세고 내후년에 정년퇴임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그의 웃음은 여전히 청춘처럼 맑다. 그는 바로 국문과의 영원한 ‘오빠’이자 ‘형’ 최상진 교수(국어국문학)다. 최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근 3년간 ‘이런 거지같은 청춘’이란 제목으로 우리학교 신문방송국 웹페이지 ‘미디어센터’에 칼럼을 연재해왔다. 그리고 올해 11월, 그의 이야기들이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왔다. 청춘의 바로 옆에서 부대끼며 고민하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교수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은 걸핏하면 휴교령이 내리고 수시로 군 병력이 주둔하던, 독재 치하의 70년대였다. ‘청춘은 있었지만 청춘은 없었다’던 뼈아픈 그의 청년시절은 늘 그에게 가슴 아프게 남았다. 그의 칼럼 제목인 ‘이런 거지같은 청춘’은 그가 지난 시절의 거지같았던 청춘을 나타낸다. 그는 “학생들에게 시대적인 아픔을 물려줄 순 없다”며 “그래서 학생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내며 잘해주려고, ‘청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의 노력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제자들의 연애사와 집안 사정까지 두루 궤고 있을 정도로 제자들과의 관계가 깊으며 2012년 말에는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통해 주어지는 ‘베스트 티쳐’상을 받기도 했다. 그에게 비결을 묻자 “호주머니가 열려있는 것 이 소통하는 것이다. 허허허”라며 천진하게 답했다.

“내 64년 인생 중 30년은 청춘으로서 배워왔고 나머지 30년은 청춘을 가르치며 살 아왔어요. 청춘들 덕분에 먹고 살았으니 청춘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지. 그래서 내 호주머니는 항상 청춘들에게 열려있어 학생들과 술도 마시고 밥도 잘 사주는 것이죠. ‘먼저 다가가는 것’, 이게 비결이랄까.”

그래서 그는 상담할 때도 7~8명씩 끓어 먼저 술을 마시러 간다고 한다. 서먹서먹한 감정을 없애버린 뒤에, 교감을 나눠 서로의 마음을 연 뒤에 시작하는 상담이 진정한 상담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과거에 학생지원처장을 맡은 것 또한 학생들과 많이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한다.

그렇게 그는 청춘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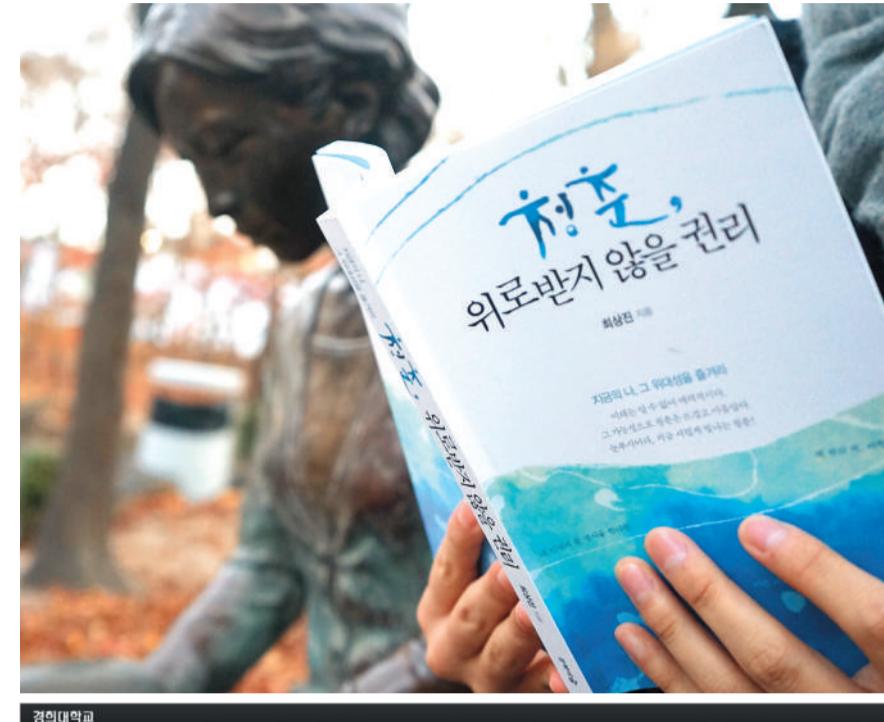
소통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왔다. 누구보다도 청춘을 먼저 생각해 오던 그도 중단된 연재를 다시 시작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정색을 한다. 2014년 4월 16일, 수백 명의 새싹 청춘이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그는 연재를 중단했다고 한다. “내가 명색이 교육 잔데 어린 아이들을 바다에 넣고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더 쓰고 싶었지만 도저히 글이 안 나오더니”고 연신 할 말이 없었다고 되뇌었다. 참으로 먹먹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청춘들이 저 세상으로 내몰리는 우리 사회를 향해 소리친다. “뻔뻔하고 허접한 엘리트 비청춘들이 사회 조직을 이끌고 있는 이상, 청춘 레퀴엠은 계속 들릴 수 밖에 없다. 청춘이 없는 미래는 죽은 미래다. 청춘들이여, 비청춘이 설계해 놓은 미래에 우롱당하지 말거리”

‘청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려고 노력

최교수의 칼럼은 항상 긍정적인 댓글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칼럼인 ‘5포 청춘’(책에 실린 제목은 ‘다 포기하지마’)은 예외였다. 이 칼럼은 연애, 결혼, 출산, 주택 그리고 인간관계를 포기한 청춘을 일컫는 5포 청춘이라는 신조어를 씁쓸하게 바라보며 청춘들에게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를 보고 어떤 이들은 ‘말이 참 쉽다’,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위해 만들어 놓은 사회에서 청춘과 비기득권보고 행복하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이다’, ‘이 시대의 청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폐배주의에 젖어 있지는 않다’, ‘잘못된 사회구조를 고칠 생각은 안하고 여전히 짧은 이의 태도 문제로 몰아가는 어르신의 말씀이 참 불편하다’는 등 댓글들이 비판의 차원을 넘어 비난으로 보일 정도로 보일 만큼 격하게 치달았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읽히고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겠지만 날선 댓글에 적잖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법도 한 일이었다. 당시 상처받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원래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법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며 “해당 칼럼을 삭제하지 말고 모든 걸 그대로 두라고 운영자 측에 전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아마 앞의 글을 다 읽지 않아 오해가 생겼던 것 같다며 “분절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칼럼과는 달리, 이번에 출간한 책은 그동안 연재해 온 칼럼을 조각조각이 아닌



경희대학교 MEDIACENTER | 대학주보 | 영어신문 | VOU | 미디어링크

프리미엄 칼럼

[연예를 포기한 연포, 결혼을 포기한 결포, 출산을 포기한 출포, 주택을 포기한 주포, 인간관계를 포기한 인포 등을 포기한 청춘을 일컫는 말이다.]

by 최상진 기자 (sjch@khu.ac.kr) | date 2014.9.25 9:57 | hit 4464



최근 5포 청춘이라는 신조어가 청춘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다. 연예를 포기한 연포, 결혼을 포기한 결포, 출산을 포기한 출포, 주택을 포기한 주포, 인간관계를 포기한 인포 등을 포기한 청춘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청춘들은 알마나 몰락한 상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실히 보여 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이런 현상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고 슬픕니다. 도대체 포기할 걸 포기해야지 이런 걸 다 포기한다는 말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춘, 조로 청춘 등등… 그리고 그 청춘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깨닫게 된다.

최 교수는 이 책을 모두에게 권하지만 특히 새로 들어오는 새내기 학생들과 지쳐가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을 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학생들은 용기를, 부모들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젊은 청춘들이 폐배주의에

익숙해지지 말기

그에게 이 책을 읽을 청춘들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다.

“폐배적인 청춘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익숙해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젊고 얼마나 좋아. 또 노인들, 젊은 엄마아빠들은 자신의 청춘시절을 떠올리며 청춘들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춘들이 자지 말고 깨어 있길 바랍니다.”

인터넷 일기 오전 최 교수는 분당의 한 고등학교에서 인문학 강연을 하고 왔다고 한다. 그런데 커다란 시청각교육실에 모인 120명의 학생 중 20명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더란다. 원해서 자신을 불렀을 텐데 뭐하자는 건가 싶었다며 그는 씁쓸해했다. 그는 이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대학생 청춘들에게도 고한다. “자지 말고 깨어있자! 어린 캐기루처럼 부모의 품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쬐며 꾸벅꾸벅 졸고 있는 넌 정말 거지같은 청춘이다. 언제까지 졸고 있을 거냐?”

마지막으로 그는 이 시대를 책임질 우리의 젊은 청춘들이 한 가지 더 포기한 게 있다며 “시대정신을 잊어버리고 힘든 취업에 매달려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항상 청춘들이 개혁과 혁명의 중심에 있어왔고, 지금의 청춘들도 그래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청춘이라는, ‘교수님’보다 ‘선생님’이 좋다는 최 교수는 힘들 때 묵묵히 내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함께 하는 마음을 전한다. 때로는 청춘을 위로하며 때로는 비청춘을 같이 옥해주며 때로는 잘못한 점은 꾸짖기도 하며 말이다. “같이 소주 한 잔 하자구~” 청춘들에게 웃으며 먼저 손 내미는 그는 앞으로 이 책을 읽을 수많은 청춘에게 영원한 형이자 오빠가 되어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통합된 흐름 속에서 전체적인 의도를 감안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항상 청춘들이 개혁과 혁명의 중심에 있어왔고, 지금의 청춘들도 그래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

최상진 칼럼 ‘이런 거지같은 청춘’

<55> 5포 청춘

“이런 거지같은”이라는 말은 출사 갑작사처럼 넓고 사는, 그래서 듣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시 나도 거지같은”이라는 무언과 같은 청춘을 일컫는 말이다. 현장을 살아가는 청춘들은 알마나 몰락한 상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실히 보여 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이런 현상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고 슬픕니다. 도대체 포기할 걸 포기해야지 이런 걸 다 포기한다는 말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THEME

주제별 연재 기사보기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온아의 ‘강의 일기’
- 한동희의 Rock&樂
- 안병희의 꽃 이야기
- 고전의 사계
- 캠퍼스 새겨진 경희 정신
- 최상진의 ‘이런 거지같은 청춘’
- 안승범의 ‘작은 영광으로 본 큰 세상’
- 남기원의 ‘술은 역사를 찾아서’
- 김용은의 중앙박물관 유물 신해
- 혜경박물관의 고지도 이야기
- 소통하는 인간 ‘호모커뮤니库스’를 꿈꾸다
- 커뮤니티에 디자인하는 혁신학습

“

5포 청춘

“연예를 포기한 연포, 결혼을 포기한 결포, 출산을 포기한 출포, 주택을 포기한 주포, 인간관계를 포기한 인포 등을 포기한 청춘을 일컫는 말이다.”

by 최상진 기자 (sjch@khu.ac.kr) | date 2014.9.25 9:57 | hit 4464

“

최상진 칼럼 ‘이런 거지같은 청춘’

“이런 거지같은”이라는 말은 출사 갑작사처럼 넓고 사는, 그래서 듣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시 나도 거지같은”이라는 무언과 같은 청춘을 일컫는 말이다. 현장을 살아가는 청춘들은 알마나 몰락한 상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실히 보여 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이런 현상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고 슬픕니다. 도대체 포기할 걸 포기해야지 이런 걸 다 포기한다는 말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5포 청춘

“연예를 포기한 연포, 결혼을 포기한 결포, 출산을 포기한 출포, 주택을 포기한 주포, 인간관계를 포기한 인포 등을 포기한 청춘을 일컫는 말이다.”

by 최상진 기자 (sjch@khu.ac.kr) | date 2014.9.25 9:57 | hit 4464

“

최상진 칼럼 ‘이런 거지같은 청춘’

“이런 거지같은”이라는 말은 출사 갑작사처럼 넓고 사는, 그래서 듣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시 나도 거지같은”이라는 무언과 같은 청춘을 일컫는 말이다. 현장을 살아가는 청춘들은 알마나 몰락한 상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실히 보여 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이런 현상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고 슬픕니다. 도대체 포기할 걸 포기해야지 이런 걸 다 포기한다는 말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5포 청춘

“연예를 포기한 연포, 결혼을 포기한 결포, 출산을 포기한 출포, 주택을 포기한 주포, 인간관계를 포기한 인포 등을 포기한 청춘을 일컫는 말이다.”

by 최상진 기자 (sjch@khu.ac.kr) | date 2014.9.25 9:57 | hit 4464

“

최상진 칼럼 ‘이런 거지같은 청춘’

“이런 거지같은”이라는 말은 출사 갑작사처럼 넓고 사는, 그래서 듣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시 나도 거지같은”이라는 무언과 같은 청춘을 일컫는 말이다. 현장을 살아가는 청춘들은 알마나 몰락한 상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실히 보여 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이런 현상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고 슬픕니다. 도대체 포기할 걸 포기해야지 이런 걸 다 포기한다는 말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5포 청춘

“연예를 포기한 연포, 결혼을 포기한 결포, 출산을 포기한 출포, 주택을 포기한 주포, 인간관계를 포기한 인포 등을 포기한 청춘을 일컫는 말이다.”

by 최상진 기자 (sjch@khu.ac.kr) | date 2014.9.25 9:57 | hit 4464

“

최상진 칼럼 ‘이런 거지같은 청춘’

“이런 거지같은”이라는 말은 출사 갑작사처럼 넓고 사는, 그래서 듣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시 나도 거지같은”이라는 무언과 같은 청춘을 일컫는 말이다. 현장을 살아가는 청춘들은 알마나 몰락한 상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실히 보여 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이런 현상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고 슬픕니다. 도대체 포기할 걸 포기해야지 이런 걸 다 포기한다는 말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5포 청춘

“연예를 포기한 연포, 결혼을 포기한 결포, 출산을 포기한 출포, 주택을 포기한 주포, 인간관계를 포기한 인포 등을 포기한 청춘을 일컫는 말이다.”

by 최상진 기자 (sjch@khu.ac.kr) | date 2014.9.25 9:57 | hit 4464

“

최상진 칼럼 ‘이런 거지같은 청춘’

“이런 거지같은”이라는 말은 출사 갑작사처럼 넓고 사는, 그래서 듣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시 나도 거지같은”이라는 무언과 같은 청춘을 일컫는 말이다. 현장을 살아가는 청춘들은 알마나 몰락한 상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실히 보여 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이런 현상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고 슬픕니다. 도대체 포기할 걸 포기해야지 이런 걸 다 포기한다는 말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5포 청춘

“연예를 포기한 연포, 결혼을 포기한 결포, 출산을 포기한 출포, 주택을 포기한 주포, 인간관계를 포기한 인포 등을 포기한 청춘을 일컫는 말이다.”

by 최상진 기자 (sjch@khu.ac.kr) | date 2014.9.25 9:57 | hit 4464

“

최상진 칼럼 ‘이런 거지같은 청춘’

“이런 거지같은”이라는 말은 출사 갑작사처럼 넓고 사는, 그래서 듣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시 나도 거지같은”이라는 무언과 같은 청춘을 일컫는 말이다. 현장을 살아가는 청춘들은 알마나 몰락한 상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실히 보여 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이런 현상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고 슬픕니다. 도대체 포기할 걸 포기해야지 이런 걸 다 포기한다는 말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